

부산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부산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진

이소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진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Contents

I	부산형 공정관광 정책 도입의 필요	
	1. 뉴투어리즘 시대의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	04
	2. COVID19 이후 관광의 트렌드 변화	05
	3.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공정관광 정책 도입의 필요	10
II	공정관광 개념 및 관련 정책동향	
	1. 공정관광 개념 및 범주	12
	2. 관련 정책 동향	17
	3. 자치단체 운영 사례	26
III	부산관광의 실태분석	
	1. 빅데이터 활용 방문행태분석	36
	2. 부산관광 실태분석	41
IV	해외 사례분석	
	1. 유럽의 공정관광 정책사례	54
	2. 일본의 공정관광 정책사례	62
IV	부산시 공정관광 활성화 전략	
	1. 부산시 공정관광 육성 기본방향	73
	2. 부산시 공정관광 추진전략	76
	참고문헌	89

I

부산형 공정관광 정책 도입의 필요

1. 뉴투어리즘 시대의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

환경파괴적인 대중관광에서 지역주민이 함께 만족하는 뉴투어리즘으로 패러다임 변화

- 관광(tourism)은 그 유래에서부터 사실 대중관광(mass tourism)의 특성이 강함
 - 교통수단의 발달, 소득 증가 및 여가 증대로 야기된 여행의 대중화는 관광산업의 조직화로 인해 폭증되었으며, 이로 인한 한계에 봉착
- 관광학계에서도 표준화, 일반화된 경직적인 패키지 중심의 관광, 유사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 마케팅, 대량소비라는 특징을 갖는 대중관광은 구태의연한 구관광(old tourism)이 되어 가고, 점차 신관광(new tourism)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
- 특정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됨으로써 관광지 거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과잉관광(Over Tourism) 문제도 대중관광으로 인한 피해중의 하나로 이슈가 되고 있음
 -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지에서는 'Tourist go home'이라는 관광객 혐오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하루에 약 1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서울 북촌한옥마을의 골목에는 '새벽부터 오는 관광객, 주민은 쉬고 싶다'는 플래카드로서 관광객 방문에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음(전명숙 외, 2018)
 - 오버 투어리즘의 문제는 도시관광에서는 종종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결합되어 나타나면서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함

- 도시의 주목받지 못하던 일정구역이 세련된 이미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기존의 거주민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역을 떠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지역의 관광지화를 이끄는 관광객을 문제삼는 경향임
- 도시 및 지역관광의 목적이 단순히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지역주민도 만족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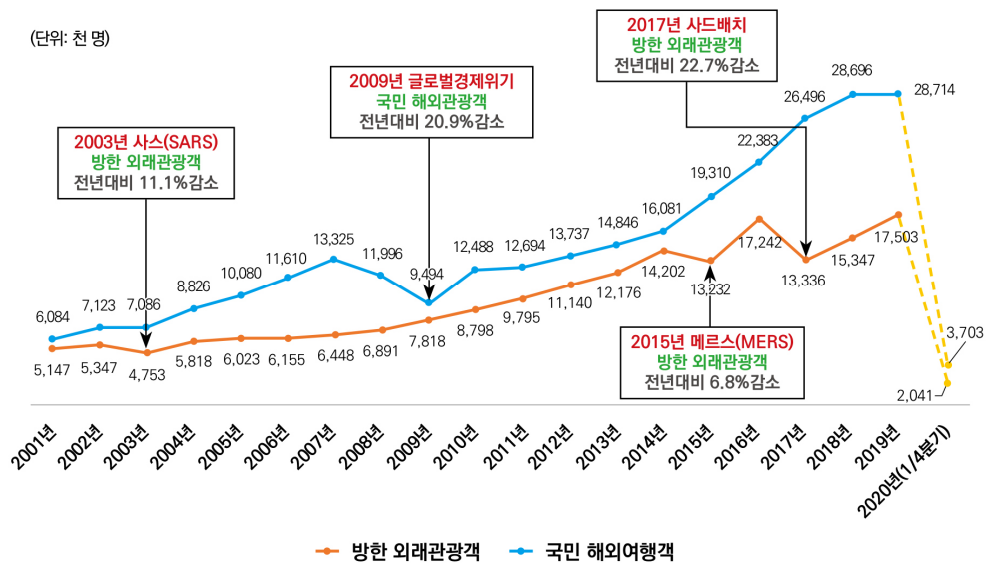
2. COVID19 이후 관광의 트렌드 변화

COVID19에 따른 관광시장의 위축

- COVID-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는 세계 경제를 멈추게 하는 최악의 상황을 이끌었으며, 관광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 중의 하나임
 - COVID-19는 이전에 발생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관광시장에 악영향을 끼침
- 세계관광기구(UNWTO, 2021)는 세계관광시장의 회복도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세계관광시장 역시 2019년 대비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측
- 국내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입어,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체육관광부(2021)에 따르면, 2019년 관광업 매출액 8조 6,271억 원에서 2020년 1조 2,142억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여행업계 피해액은 7조 4,000억 원, 폐업상태인 여행사도 4,000개가 넘는 상태
- 여행업협회(2021)에 따르면, 조사대상 1만 7천여 개 업체 중 폐업신고 202개, 폐업 상태는 3,953개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 연도별 방한 외래관광객 및 국민 해외여행객 추이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여기서는 정대영 외(2020)에서 재인용

COVID19 이후 세계여행지수 변화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22)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 등이 여행 및 관광 부문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전략적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여행 및 관광개발 지수(Travel&Tourism Development Index)를 개발한 바 있는데, 2019년 이후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어, 이 지수를 통해 COVID19 전후 비교가 가능
 - TTDI는 활성화 환경, 여행 및 관광 정책 및 관련 여건, 인프라, 여행 및 관광 수요 동인, 여행 및 관광의 지속가능성 5개 부문의 지표로 구성

그림 1-2 | 세계경제포럼의 여행 및 관광개발지수 구성체계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22)

- 세계경제포럼(WEF, 2022)에 따르면, 여행 및 관광 개발지수의 전문가 패널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24년까지 세계관광시장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

 - 1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여행 및 관광개발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일본이며, 미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일본, 싱가포르, 중국 다음 순위 15위에 랭크됨
- COVID-19 이전 상황인 2019년과 비교하였을 때, COVID-19 이후인 2021년에는 조사된 117개국 중 39개 국가만 1% 이상 개선되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지수 값이 감소됨

 - 한국은 COVID-19 이전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2019년 19위에서 2021년 15위로 순위 상승하여 관광개발지수가 오히려 개선된 국가에 속하여 관광경쟁력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표 1-1 | 2021 여행 및 관광개발지수

순위	국가	점수	2019년 순위	순위	국가	점수	2019년 순위
1	일본	5.2	2	11	오스트리아	4.9	11
2	미국	5.2	1	12	중국	4.9	15
3	스페인	5.2	5	13	캐나다	4.9	10
4	프랑스	5.1	6	14	네덜란드	4.9	14
5	독일	5.1	4	15	한국	4.8	19
6	스위스	5.0	7	16	포르투갈	4.8	13
7	호주	5.0	8	17	덴마크	4.7	16
8	영국	5.0	3	18	핀란드	4.7	17
9	싱가포르	5.0	9	19	홍콩특별행정구	4.6	18
10	이탈리아	4.9	12	20	스웨덴	4.6	21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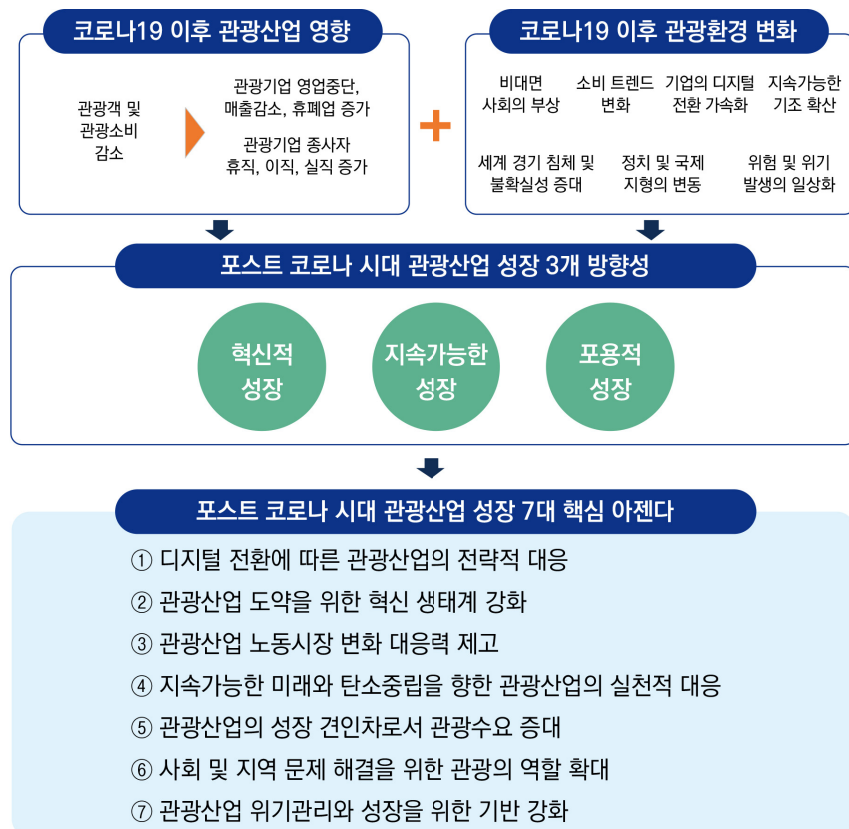
주 : 7점 척도이며, 2021년 자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수집되어 전쟁 이후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순위에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는 제외

COVID19로 인한 관광 트렌드의 변화

- 팬데믹으로 디지털 경제 확장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속화된 가운데, 관광분야 있어서도 개별관광, 안전관광, 슬로우 투어리즘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은 COVID-19 이후 관광산업의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7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COVID-19에 의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관광산업의 전략적 대응, 로컬여행의 재발견과 급부상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광의 역할 확대 등임
- 한양대관광연구소 등(2020)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파가 몰리는 도심 인공자원 및 실내중심의 폐쇄된 관광지보다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자연 중심형의 개방된 관광지, 자연 중심의 건강과 힐링을 보장할 수 있는 관광지가 선호될 것을 예측하고 있음(한양대관광연구소·한국관광학회, 2020.5)

- 팬데믹 사태가 완화된 후에도 관광지지의 높은 청결성과 낮은 혼잡도, 청정한 자연 환경이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것임
- 한국관광공사(2020)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관광행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 COVID-19로 인해 변화된 여행 트렌드를 S.A.F.E.T.Y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음(한국관광공사, 2020.6)
 - ‘안전’한 관광활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근거리(Short distance), 야외활동(Activity), 가족단위(Family), 자연친화(Eco-area), 인기 관광지(Tourist site), 관광 수요 회복 조짐은 아직(Yet.)의 첫 자를 따 변화된 여행 트렌드를 제시

그림 1-3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성장 방향성과 핵심 아젠다



자료 : 최경은 외(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성장 아젠다와 정책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뉴 투어리즘 시대에 따른 도시 및 지역관광 정책초점 변화, COVID-19에 의한 관광 트렌드 변화 등으로 부산시 관광정책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과거 지역관광정책은 대규모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 등 구관광 정책에 맞추어져 있다면, 새로운 지역관광정책은 지속가능한 관광, 책임관광, 공정관광 등 신관광 트렌드로 초점이 변해야 하는 시대임

3.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공정관광 정책 도입의 필요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부산시는 2021년 12월,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관광으로 인한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게 환원되도록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5년 단위로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제7조)
- 지원계획에는 ①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②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③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④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⑤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⑥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⑦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⑧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⑨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부산광역시의 공정관광 육성분야는 다차원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공정관광 정책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도록 함

표 1-2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정의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관광이란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생태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함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에는 ①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②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③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④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⑤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⑥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⑦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⑧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⑨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
제6조 (위원회의 설치)	<p>①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정관광위원회를 둘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p>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함</p>
제7조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지원사업은 ①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②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③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④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⑤ 공정관광 인식제고 및 홍보·마케팅 사업, ⑥ 공정관광 컨설팅·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
제8조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제9조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제10조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자료 : 부산광역시조례 제6552호(2021.12.29. 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22년 4월 6일 검색

II

공정관광 개념 및 관련 정책동향

1. 공정관광 개념 및 범주

공정관광 등장배경

- 대중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관광의 조류로서 다양한 대안 관광들이 논의되기 시작하는데, 공정관광도 그 경향중 하나임
- 공정관광은 제3세계에 대한 불평등한 무역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주장하는 공정무역의 개념이 관광분야에서 적용되면서 대두(Cleverdon&Kalisch, 2000)
 - 국제관광이 관광목적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관광 발생국과 지역 커뮤니티 간 거래라는 측면에서 공정무역 개념을 적용(Mahony, 2007)
-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가치와 필요성이 확산되었는데, 영국 NGO단체인 Tourism Concern은 1988년 관광역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경제적 분배, 인권문제 등을 주목하고 관광객의 책임과 윤리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시함(임영신, 2009; 장은경·이진형, 2010)
 - 1989년 미국의 NGO 단체 Global Exchange는 관광에서 인권유린, 환경파괴와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이종열·이형룡, 2016), 미국 정부의 경제제재로 고통받는 쿠바의 국경을 넘으며 쿠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공정여행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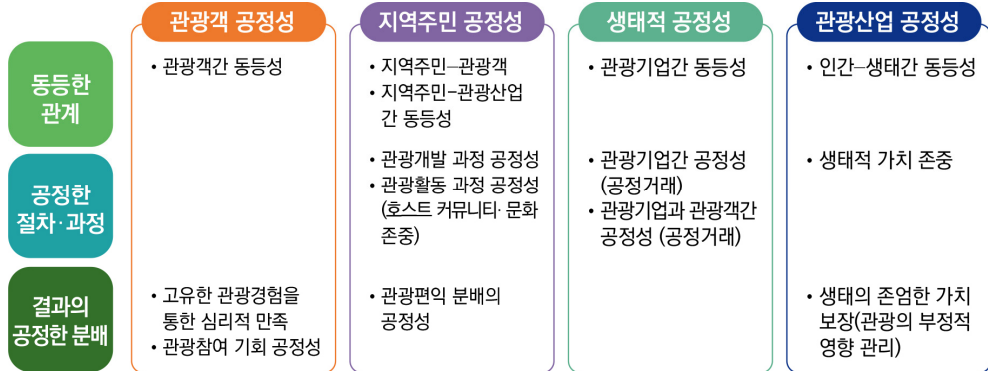
- 교육과 캠페인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시작되던 공정관광 운동은 1999년 ‘공정여행 국제 네트워크(INFT, International Network on Fair Trade in Tourism)’을 중심으로 전 세계 약 200여 개의 NGO, 지역공동체, 관광사업체 등이 참여하며 대중화(장은경·이진형, 2010)
- 초기 공정관광 연구는 남반구와 북반구 간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생존능력과 사회문화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논의로 구성
 - 국내에서는 공정여행사를 중심으로 공정여행(Fair Travel) 개념으로 도입되면서 소비가 아닌 관계, 책임감을 토대로 환경과 공존하는 여행 등으로 정의(황희정, 2021)
 - 2007년 NGO단체 이매진피스가 주최한 공정여행 축제, 여행인문학 연구모임에서 시작(장은경·이진형, 2010)하여 2009년 발간한 공정여행 가이드북을 계기로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정의, 지침과 규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작(이태숙·김철원, 2015)
- 이후 공정여행이 관광객의 도덕성에 의존하며, 이해주체 간 동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공정관광이라는 정책적 개념으로 개념화 됨(황희정, 2021)
 - 공정여행은 여행자 형태 중심이며, 공정관광은 이해관계자 간 공정한 거래와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공정관광 개념

- 공정관광보다 먼저 개념화되기 시작한 공정여행의 경우 공정여행가 및 관련 여행사를 통해 개념화되기 시작
 - 여행자와 지역주민 간 존중·동반성장과 지역공동체에 관광이익을 환원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여행(임영신·이혜영, 2009)
 - 지역 환경,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규범적 행동양식 권유 여행(장은경·이진형, 2010)

-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며, 여행비용이 그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그곳의 자연을 지켜주는 여행(트래블러스맵, travelusmap.co.kr)
- 방문지역 사람들과 그들의 역사, 환경, 경제,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여행(착한여행, goodtravel.kr)
- 이후 공정관광은 관광학계 등에서 개념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론적 틀을 갖추고 범주화하기 시작
 - 이훈(2010)은 책임과 윤리 측면이 강조된 여행형태인 공정여행에 산업적 측면(서비스, 품질)이 결합된 개념으로, 호스트커뮤니티, 생태 및 경제적 측면의 지속적 편익을 개발하는 관광이라고 정의
 - 오익근(2011)은 공정관광은 공정한 관광거래로 정의하며 관광주체간의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나눔과 상생발전을 실천하는 관광문화의 의미를 강조
- 공정하지 못한 관광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관광객, 지역 커뮤니티, 생태, 관광산업 차원을 중심으로 공정관광 개념을 정의(황희정·이훈, 2011; 황희정, 2021)
 - 첫째, 관광객 공정성 차원은 모든 개인은 관광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관광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동등한 관광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 둘째, 지역 커뮤니티 차원은 지역 커뮤니티의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일컫음
 - 셋째, 생태적 차원은 생태환경 역시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지님을 인정하여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고 환경에 대한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임
 - 넷째, 관광산업 차원은 관광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광객-관광기업 간, 또는 상이한 규모의 관광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하는 관광임

그림 2-1 | 공정관광의 개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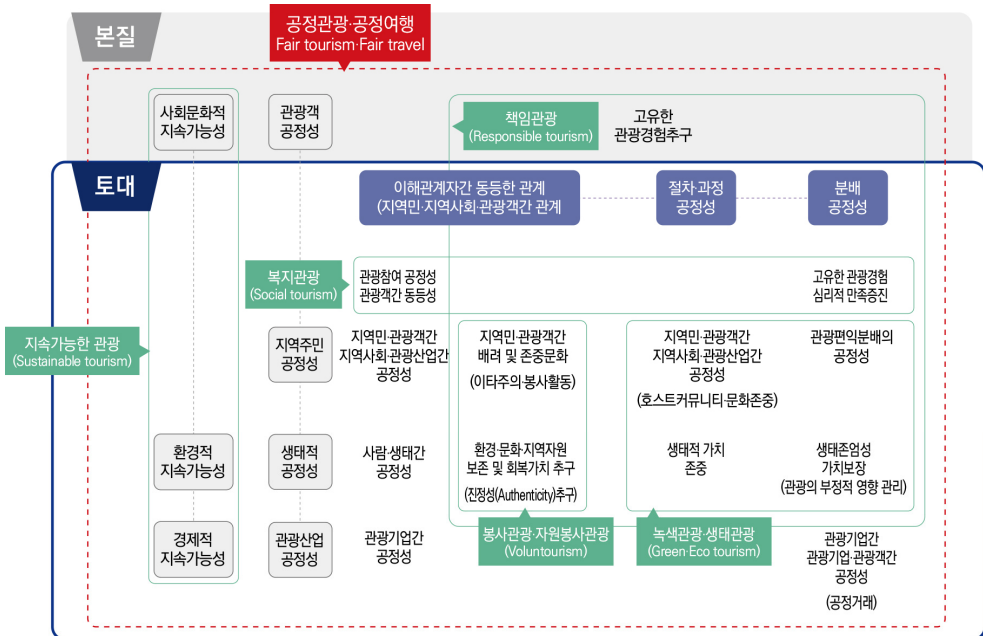
자료 : 황희정·이훈(2011)

공정관광의 범주

- 공정관광과 관련된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책임관광, 생태관광, 복지관광 등이 있음(황희정·이훈, 2011; 한국관광공사, 2011)
 - 지속가능한 관광은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등 3개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 책임관광은 관광목적지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비롯하여 관광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이익을 존중하는 관광의 형태로 정의(WTO, 1989)
 - 생태관광은 자연지역에서 책임있는 관광객의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광행위이며, 지역주민의 참여 및 이익 창출이 동반되어 관광에 의한 환경 및 사회 문화적 영향을 관리하는 관광으로 정의
 - 복지관광은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평등한 관광기회 보장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이상의 유사개념들과 공정관광의 개념을 비교하여 공정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3개 차원, 즉 사회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차원에 대한 실천적 개념이며, 책임관광, 녹색관광, 생태관광, 복지관광의 속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범주화 함(황희정·이훈, 2011; 한국관광공사, 2011)

- 또한 공정관광을 관광분야에서의 이해주체 간 동등한 권리 보장, 관광개발 절차 및 관광과정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관광으로 인한 편익의 분배 공정성 등으로 구성하여 범주화하고 있음

그림 2-2 | 공정관광 관련 개념 간 관계 및 범주



출처 : 황희정·이훈(2011), 여기서는 김형오·장재협(2019)이 재구성한 내용 재인용

- 공정관광의 개념적 범주를 지속가능관광, 책임관광, 복지관광, 봉사관광, 녹색생태 관광으로 규정하여 현재 정부정책에서 공정관광 관련 정책을 각각의 범주별로 분류한 연구도 있음(김형오·장재협, 2019)
- 넓은 의미로서 공정관광은 관광주체 간의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나눔과 상생 발전을 실천하는 관광문화의 의미이므로, 넓은 의미의 공정관광을 채택하면 대중 관광의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의 지향점이자 가치이므로 정책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작적 개념 정의가 필요

- 본 연구는 부산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부산시 관련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관광 개념을 채택하여, ‘공정관광이란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생태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으로 규정
 - 즉 부산형 공정관광은 무엇보다도 관광지 주민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으며, 주민들에게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환원되는 관광을 의미

2. 관련 정책 동향

관련 정책 동향

- 국내 공정관광은 2007년 12월 시민단체 이매진피스가 공정여행 축제와 공정여행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면서 도입되기 시작
-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관광분야에서는 공정여행사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시민단체 중심의 공정여행 움직임이 관광정책 및 산업부문에 확산
 - 관광분야 제1호 사회적기업으로 (주)우리가 만드는 미래, 트래블러스맵, 제주생태관광, 착한여행 등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공감만세, 길벗 등이 지정되면서 공정관광부문이 정책적으로 지원되기 시작

표 2-1 | 국내 주요 공정여행사

구분	주요 현황
트래블러스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의 전문성과 공정여행의 기준을 바탕으로 여행자 만족 추구 • 국내 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국외 공정여행지도 연계 • 국내 여행지로는 제주, 청산도, 지리산 둘레길, 강원도 강릉바우길, 남해 바래길, 울릉도 등 소개
착한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7월 설립여행된 국내 공정여행의 효시/사회적기업 • 여행자와 여행지, 모두가 행복한 공정여행을 추구하며,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에 지사 설립/국내에서는 제주착한여행, 울산착한여행 설립 • 국내외 여행상품: 경주 최부자스테이, 무심코 내린 울산, 밤향기 가득 공주, 부산에서 술한잔,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 올레길, 지리산 생태탐방길 등 여행상품 운용

구분	주요 현황
트래블러스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의 전문성과 공정여행의 기준을 바탕으로 여행자 만족 추구 국내 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국외 공정여행지도 연계 국내 여행지로는 제주, 청산도, 지리산 둘레길, 강원도 강릉바우길, 남해 바래길, 울릉도 등 소개
착한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7월 설립여행된 국내 공정여행의 효시/사회적기업 여행자와 여행지, 모두가 행복한 공정여행을 추구하며,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에 지사 설립/국내에서는 제주착한여행, 울산착한여행 설립 국내외 여행상품: 경주 최부자스테이, 무심코 내린 울산, 밤향기 가득 공주, 부산에서 술한잔,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 올레길, 지리산 생태탐방길 등 여행상품 운용
이매진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부터 어린이, 청소년 평화교육과 분쟁지역에 평화도서관 만들기, 평화를 배우는 여행을 운영하는 NGO단체 공정여행 가이드북 <희망을 여행하라>을 통해 공정여행 효시로 알려짐 평화여행, 평화행동, 평화교육, 평화놀이터를 운영
공감만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함에 감동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시아, 유럽 등 20개국 100여개 도시에서 공정여행 진행 청소년 여행학교, 국내외 공정여행, 정책연수, 국제개발/재난대응, 커뮤니티 공간조성/운영, R&D/인큐베이팅/교육 사업 추진중
제주생태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년 역사문화기행 전문여행사 '이야기 제주'에서 시작 2003 (주)제주생태관광 설립하며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용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에코포레스트, 로컬 에코여행, 스머든 제주 등 주로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여행상품 운용

자료 : 트래블러스맵(<https://travelersmap.co.kr>), 착한여행(<https://www.goodtravel.kr>), 이매진피스(<http://www.imaginepeace.kr>), 공감만세(<https://www.fairtravelkorea.com>), 제주생태관광(<https://sayecojeju.com>), 검색일: 2022년 5월 16일

- 2010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위하여 관광분야의 거래 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기 시작(한국관광공사, 2011)
 -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되는 관광분야의 거래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등임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관광객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및 불공정 거래 규제를 위하여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을 제정하여, 여행 취소로 인한 피해 보상, 계약의 구성,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요금, 여행조건의 변경 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보상 등에 대하여 규제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개최된 제6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저가 덤핑상품, 관광사업체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한중일 공정관광 이니셔티브’를 체결하면서 공정여행에 대한 업무 수행
 - 여행산업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의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진흥법 등을 통해 공정관광 지원
 - 관광진흥법 제35조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기준을 명시하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기획여행, 안전정보·여행계약서 미제시, 선택관광을 포함한 여행일정 변경, 그리고 여행계약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여행사 등록 취소 가능
-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2010년 한국관광공사가 공정여행 움직임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여행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fair_travel)를 개설하며 공정여행 캠페인 시작
 - 공정여행을 ‘현지인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 환경과 자연을 지키는 여행,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여행, 소비가 아닌 관계를 맺는 여행’으로 규정하고 공정여행 가이드 제시
 - 국내 지역별 공정 여행지와 관련 축제 정보도 제공하며 공정여행 관련 홍보·마케팅 지원
- 한편, 국내에서도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대두되면, 관광진흥법 상에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2019년 관광진흥법이 개정
 - 북촌한옥마을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는 2018년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건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규정을 개정
 - 2009년 신설된 관광진흥법 제48조의 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의 당초 규정은 ‘지속 가능한 관광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훼손을 줄이는 관광’으로 규정
 - 개정법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관광’으로 규정

- 또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단체 장이 관광객의 방문이 지역의 수용범위를 초과하여 자연환경이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2021년 4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특별관리지역 관리를 위한 추가 조치 사항을 신설

표 2-2 | 관광진흥법상 관련 규정

구분	주요 현황
제48조의 3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 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 할 수 있음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⑦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⑧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⑩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22년 6월 24일 검색

관련 조례 제정 동향

- 공정관광 조례는 2017년 대전시가 광역시에서 처음으로 공정관광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북, 제주, 경기, 서울, 경북 등에서도 공정관광 조례를 제정하였음

표 2-3 | 광역자치단체 공정관광 관련 지원 조례

구분	조례	제정일자
서울시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5.19
부산시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12.29
대전시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17.08.11
울산시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3.18
경기도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1.13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17.12.19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7.01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7.09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30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07.31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22년 5월 18일 검색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18년 대전시 대덕구가 처음으로 공정관광 조례를 제정하였음
- 2022년 5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10곳, 기초자치단체 14곳 총 24곳에서 공정관광 관련 조례를 제정

표 2-3 | 기초자치단체 공정관광 관련 지원 조례

구분	조례	제정일자	
서울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01.26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	2022.03.24
	종구	서울특별시 종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11.06
부산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12.31

구분	조례	제정일자
대전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11.14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1.11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8.03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5.29
울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12.29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5.07
	연천군 연천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5.07
강원도	양구군 양구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03.31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10.08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4.12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22년 5월 18일 검색

- 부산시와 비교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공정관광 관련 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지원센터의 설치, 재정지원, 시행규칙 등 차이가 있음
 - 서울시와,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공정관광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 울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의 경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음
- 조례 자체가 공정관광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응하여 관광진흥조례상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마을 관리를 위해 조례를 마련한 경우도 있음
 -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서울시 및 종로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2020년 5월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여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2-4 | 관광진흥조례상 관련 규정

구분	주요 현황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① 시장은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제12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구분	주요 현황
서울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특별 관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③ 시장은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신청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 - 제1호를 위하여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조사위원회의 운영 -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
부산시 관광진흥 조례 제18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②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③ 법 제48조의3 제4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 -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 변경 또는 해제 일시(특별관리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만 해당) - 특별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해제 시 해당없음)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해제 시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관광지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 생태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의 신청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관광객으로 인하여 생태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이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관광지 역사·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군수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 -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관리지역 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별관리지역의 공정관광 규약의 작성·배포 나. 방문시간 또는 방문인원을 제한하는 경우의 홍보 다. 안내판 표지 설치 등 관광객 수칙의 홍보 라. 관광가이드 대상 공정관광 교육의 실시 마.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22년 6월 24일 검색

- 한편 부산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의 주민주도 관광마을 만들기 사례를 자체 조례로 규정하여, 마을주민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사업계획 수립, 수익사업 관리, 기금 수입·지출 관리, 공공시설 운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공공재정으로 조성된 공간 조형물, 예술작품 등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서 관리되어야 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 위탁,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되, 제 16조의 공유재산의 관리 규정에 따라, 다른 단체 등에 우선하여 주민협의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2-5 | 부산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구분	주요 현황
목적 (제1조)	감천2동 천마산과 옥녀봉 사이의 산 비탈면에 계단식으로 형성된 마을의 역사성과 문화·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려 도심 속의 예술·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와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책무 (제4조)	① 구청장은 문화마을이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목표를 가진 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② 구청장은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문화마을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③ 주민들은 문화마을이 역사성과 문화적·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려 창조적 도시재생마을로 조성되도록 하는데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주체에 적극 협력 ④ 사업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기본원칙 (제5조)	① 문화마을 조성은 마을의 최대 자원이자 매력인 마을경관의 보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②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마을 및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연대인식을 바탕으로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③ 주민의 연령, 성별, 심신의 상황,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의 차이 때문에 참가할 권리를 제한받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
주민협의체의 구성 등 (제7조~ 제9조)	제7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마을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를 둬 제8조 주민협의체는 다음을 협의하거나 심의·결정함 1. 문화마을 조성 및 관련한 각종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 내 마을기업 등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3. 마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4. 마을 내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요 현황
	5. 축제 등 주민 공동의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6.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다른 지역에서 수익사업을 위해 문화마을로 입점하는 업소(업체)에 대하여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입점허용 등에 관한 사항 8. 문화마을의 경관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과 주민협의체간 경관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등 제9조 주민협의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하고, 문화마을 조성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계·예술계·문화계, 행정기관 등의 외부인사들도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	① 문화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감천문화마을 비즈니스센터를 문화마을 내에 설치 ② 센터는 마을 공동작업장, 체험·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상품 판매 등의 용도로 활용 ③ 구청장은 센터 내 공동작업장 이용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 ④ 센터 내 시설의 사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면제하되, 강사료, 재료비, 공공요금 등 실제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부담
지원 (제15조)	① 구청장은 문화마을의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협의체 등을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1. 지역 개발형 축제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사 2.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 및 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3. 마을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상주 작가들에 대한 공유재산 무료임대 및 거주, 작품 활동 공간 등에 대한 수리비 지원 등 문화 활동 증진사업 5. 공공 미술 프로젝트 유치 사업 6.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7. 환경개선 등 마을만들기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화마을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② 구청장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문화마을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공유재산의 관리 (제16조)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의 방법으로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과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연장 가능 ③ 구청장은 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 우선하여 공유재산을 주민협의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음 ④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으며, 기간은 사용·수익허가는 5년으로 하고, 대부할 경우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그 외 재산은 1년으로 하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음 ⑤ 구청장은 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에 우선하여 공유재산을 주민협의체 또는 상주작가에게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음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22년 7월 1일 검색

3. 자치단체 운영 사례

1) 서울시 공정관광 사례

서울 공정관광 정책 동향

- 관련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되었지만, 서울시의 공정관광 운영 사례는 오랜 역사를 지님
 - 2014년 서울 외래 관광객 천만 명 돌파 이래, 서울관광의 양적 성장과 함께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서울시는 과잉관광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서울공정관광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 2018년에는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 개최와 연계하여 세계적 관광도시 베니스 자치구 의회와 암스테르담 관광청과 공정관광 증진 및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함
 - 2021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 도시관광의 회복, 전환, 연결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공정관광 자문위원장, 한국관광학회장, (주)착한여행 대표, 이매진피스 대표 등이 모여 공정관광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감
- 서울관광재단과 세계관광기구(UNWTO)의 'Travelenjoyrepect'와 함께 공정관광캠페인도 진행
 - 우리가 함께 사는 도시를 여행하는 시민이라는 의미로 'Fair Travel Living Together' 캠페인을 실시
 - 캠페인 상징인 'LoLo'는 더듬이로 사람, 자연과 소통하며 느릿느릿 도시를 여행하는 시민을 달팽이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여행방식을 안내

그림 2-3 | 서울 공정관광 프로그램



자료 : 서울공정관광포럼 홈페이지(<https://www.seoulfairtourismforum.net>)

서울 북촌한옥마을 사례

- 서울 북촌한옥마을은 전통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대표적 전통 주거지역으로 조선시대에 조성된 양반층 주거지로 현재까지도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임
 - 북촌한옥마을은 역사문화자원, 박물관 공방들이 곳곳에 있어 한국 고유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
- 주말이면, 많은 방문객이 몰려 서울의 대표적 오버투어리즘 이슈 장소이기도 하여 서울시가 북촌한옥마을을 대상으로 공정관광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음
 - 2017년 실시된 ‘아름다운 여행자’ 캠페인은 북촌의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며, 주민의 삶을 배려한 여행 에티켓을 준수하는 여행자로서, 여행을 떠나기 전 북촌주민 해설사로부터 마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아름다운 여행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캠페인 목걸이를 착용
 - 여행팀은 회당 10명을 넘지 않으며, 탐방 도중 큰 소리로 떠들지 않으며, 가능한 카메라보다는 눈과 마음에 담아가도록 유도하며, 탐방 시 마을해설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무선송신기를 사용하는 등 성숙한 마을여행을 유도

그림 2-4 | 북촌한옥마을 공정여행 프로그램



서울 북촌마을여행의 무선송신기



북촌에서 지켜야할 에티켓(연구자 촬영:2022.5.20.)

- 북촌한옥마을에서는 100년이 넘는 고택부터 현대인의 삶에 맞게 지은 현대 한옥까지 한옥과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해설사 등이 전해주는 ‘한옥 공간탐방과 마을여행’ 프로그램 운영(서울특별시, 2019)
 - 2022년 현재는 서울도보해설관광 프로그램 내에서 북촌한옥마을 코스를 예약하여 이용 가능

북촌한옥마을 에티켓

북촌한옥마을은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는 여행 에티켓을 지키며,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 대화는 작은 소리로, 한옥마을 주민들을 배려하기
- 가져온 쓰레기는 가지고 가기
- 확장기나 마이크 사용 안하기
- 열린 집의 문 틈새로 촬영하지 않기

자료 : Visit Seoul 홈페이지(<https://korean.visitseoul.net/walking-tour>), 검색일: 2022년 5월 18일

그림 2-5 | 북촌한옥마을 도보해설 관광코스



자료 : Visit Seoul 홈페이지(<https://korean.visitseoul.net/walking-tour>), 검색일: 2022년 5월 18일

2) 대전시 공정관광 사례

대전 공정관광 정책동향

- 2017년 관련 조례 제정 등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간 대전시의 경우 시 의회를 중심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정관광의 육성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
 - 2017년 1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공정관광(지역기반관광) 육성 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역과 지역민을 기반으로 한 공정관광 육성의 필요성을 논의

- 관광사업으로 생겨난 수익이 지역민들에게 환원되지 않고 외지의 투자자들에게 누출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기반관광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이 제기
- 시, 시의회, 대전마케팅공사 관계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 마을넷 센터장, 대전체험여행협동조합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 방안 논의
-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2017년 7월 통과됨에 따라,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공정관광위원회 설립, 공정관광지원 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규정
 - 이에 따라 2017년 10월에는 대전마케팅공사에 의해 공정관광 활성화 증장기 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가 마련
 -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을 위한 대전지역기반 공정관광 활성화 증장기추진 방안 제안
- 이후 2018년 대전시와 대전마케팅공사는 지역 관광자원과 문화 등 매력적인 요소를 여행상품으로 발굴하고 여행 성과를 나누기 위해 ‘대전 공정관광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
 - 공모신청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법인, 여행사 등이 응모하여 최종 선정되면 프로그램당 2천~3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
 - 공모를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2020년 7월 사업선정 결과, 계속사업 3개, 신규사업 5개 등 모두 8개의 제안프로그램이 최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함
- ‘대전 근대로(路)를 따라 걷다’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으로 발굴된 대표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원도심을 걸으며 근대건축물을 찾아보고 근대 역사를 만나는 답사형 여행에 해당(이소영·김도형, 2020)
 - 대전 원도심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관광객들이 근대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만의 독특한 먹거리 체험을 통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기획

그림 2-6 | '대전 근대로(路)를 따라 걷다' 프로그램 리플릿(2018년)

뚜벅뚜벅 대전근대 역사투어

2018 근대를 걷다

대전 원도심에는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근대 건축물들이 즐비합니다. 2018 근대를 걷다 프로그램은 대전의 원도심을 걸으며 근대건축물을 찾아 보고 근대 역사를 만나는 탐사형 여행입니다. 사유담 협동조합은 대전 원도심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근대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 대전만의 독특한 먹거리 체험을 통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체험형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기간 2018. 7. 23(월)~11.27(화)
장소 대전근대사건시관
인원 1회당 30명
대상 일반 시민 누구나
참가비 5천원
신청방법 전화 및 문자 접수 | 인터넷 접수
Tel.042-824-9111
Call.092-5077
http://cafe.naver.com/4uhealing

※단체 참여 신청 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단체 신청 시 일정과 시간 조정 가능)
※행사 프로그램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Program

번차	일차	시간	장소
1	7.23(월)	1000~1400	대전근대사건시관
2	8.06(화)	1000~1400	대전근대사건시관
3	8.20(토)	1000~1400	대전근대사건시관
4	8.27(토)	1000~1400	대전근대사건시관
5	9.04(토)	1000~1400	대전근대사건시관
6	9.10(토)	1000~1400	대전근대사건시관
7	9.21(목)	1000~1400	대전근대사건시관
8	10.06(토)	1000~1400	대전근대사건시관
9	10.16(화)	1000~1400	대전근대사건시관
10	10.28(토)	1000~1400	대전근대사건시관
11	10.30(화)	1000~1400	대전근대사건시관
12	11.06(화)	1000~1400	대전근대사건시관
13	11.13(화)	1000~1400	대전근대사건시관
14	11.20(화)	1000~1400	대전근대사건시관
15	11.27(화)	1000~1400	대전근대사건시관

내용

1. 근대건축을 뛰어
대통령, 은행장, 중등 교육감독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 떠나는 역사문화 탐험

2. 먹거리 체험
유능이 문화거리 - 지하상가 - 중앙시장 - 역전시장으로 이어지는 먹방 열차

3. 미션
미션보드를 가지고 골목골목 숨겨져 있는 문화재의 먹거리를 완성하라!

자료 : 사유담역사탐방 협동조합 카페(<https://cafe.naver.com/4uhealing>), 이소영·김도형, 2020에서 재인용

대전 공정관광 기획자 양성교육 사례

- 2022년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는 공정관광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대전공정관광 기획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대전 공정관광 기획자 양성교육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정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문역량을 갖춘 기획자를 양성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
 - 모집대상은 대전광역시 소재 협동조합, 마을기업, 조합법인, 법인, 개인사업자 등이며, 동일 법인 내 최대 2명까지 참가 가능
 - 교육기간은 총 6주이며, 공정관광교육에 80% 이상 참가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을 발급받는 사람은 2022년 대전공정관광 프로그램 공모전 참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

- 관련 교육은 대전관광공사가 사회적 기업 (주)공감만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주)공감만세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 교육 커리큘럼 등은 (주)공감만세에서 기획하며, 실제 강의는 (주)공감만세 뿐만 아니라 대전체협여행협동조합, 공정여행 동네봄 등이 강사진으로 구성

표 2-6 | 대전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커리큘럼

구분	상세내용	교수법
1주차	• [오리엔테이션] 더불어 행복한 솔루션, 공정관광	강좌
2주차	• [워크숍] 우리 동네에서 공정여행을 한다면 I - 우리 지역 공정관광 요소 찾아보기 • [워크숍] 우리 동네에서 공정여행을 한다면 II - 비즈니스캔버스 모델로 설명하는 공정여행	강좌, 실습
3주차	• [특강] 공정여행으로 살아남기(공정관광 운영사례) • [강좌] 우리 지역에는 어떤 관광자원이 있을까?	강좌
4주차	• 공정여행 사례 탐구: 울산 울주군	선진지 답사
5주차	• [워크숍] 우리 동네에서 공정여행을 한다면 III - 조별 공정여행 기획 및 상품화 실습 • [컨설팅] 공정여행 기획 최종 컨설팅 - 조별 맞춤형 멘토링 및 상품화 최종 컨설팅 워크숍	실습
6주차	• [최종발표 및 졸업식] 우리 동네 공정여행(상호 평가)	발표

자료 : 대전공정관광 홈페이지(www.daejeon-fairtravel.com), 2022년 5월 18일 검색

3) 제주도 공정관광 사례

제주 공정관광 정책동향

- 제주도는 2007년 제주올레가 생기면서 제주 공정여행의 실제 프로그램이 먼저 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공정여행이 추진되었음
 - 지속적인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오버투어리즘 이슈가 대두되어 관광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공정관광이 도입되었음

- 제주도 내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공정여행에 지역의 경제와 연계하여 ‘구름에’, ‘제주생태관광’, ‘동네봄’, ‘효돈천 트레킹’ 등 주민 참여형 산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착한여행은 공정여행으로 마을여행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제주의 청정 자연과 좋은 마을여행 콘텐츠 등을 발굴하여 관광객, 주민, 여행지 모두 만족하는 공정여행을 만들고 있음
- 제주생태관광은 환경과 주민을 생각하는 여행을 만드는 공정여행 사회적기업으로 주민 참여형 여행을 기획하여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옴
- 제주올레 공식파트너인 사회적 기업 풍낭은 공정여행을 접목하여 추자올레, 한라산 둘레길 등을 기획
- 이에 따라 제주도도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제주관광산업의 체질 개선과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 제주도의 경우 타 자치단체와 달리 공정관광 관련 조례에 우수·시범마을 지정 및 지원(제7조)과 실태조사(제8조) 등의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음
 - 제주도의 공정관광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에 따라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임
 - 제주도는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시범마을을 지정하여 공정관광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정관광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제주마을여행 ‘카름스테이’ 운영사례

- 2021년 11월 22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마을여행패키지로 ‘카름스테이 (KaReum Stay)’ 개발
 - 카름스테이는 제주 마을여행 통합 브랜드로 제주관광공사가 마을관광을 모티브로 한 여행이며, 작은 동네나 마을을 뜻하는 제주 방언인 카름(가름)과 머물다(stay)를 결합한 말로 공동체 기반의 주민 중심 관광 사업임
 - 카름스테이는 쉼, 머물, 여유, 다정함이라는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기존의 주민주도 마을관광 사업인 에코파티, 로캥스를 통합하여 브랜드화 함
 - 제주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제주시 4곳(애월읍 수산리, 한경면 저지리·신창리, 구좌읍 세화리), 서귀포시 6곳(남원읍 한남리·의귀리·신흥2리, 표선면 가시리, 하효리, 치유의 숲)을 대상으로 하효살롱협동조합, 선흘곶협동조합, 마라도협동조합, 웃귀마테마타운, 머쳐왓숲길영농조합법인, 신흥2리동백보전연구회, 구좌주민여행사 등 7개 거점 지역에 조직체가 설립되어 관광 산업을 주도

그림 2-7 | 제주마을관광 통합브랜드 카름스테이(좌) 및 대상지역(우)



출처 : 제주관광공사(2022), 제주마을관광 통합브랜드 런칭, 제주마을여행 브랜드 카름스테이 소개 및 카름스테이홈페이지(<https://www.kareumstay.com>)

- 권역별로 동부권(동카툼), 서부권(서카툼), 남부권(알가툼) 나누고 체험프로그램 진행
 - 세화리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세화마을협동조합에서 만든 질그랭이센터가 있으며, 마을주민이 직접 마을을 소개하고 해녀여행, 오름, 용천수와 당, 다크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있음
 - 의귀리는 체험휴양마을로 제주말의 고장답게 승마체험이 있으며, 제주마를 타고 편백숲을 체험할 수 있음
 - 한남리는 마음의 위안과 휴식을 주는 곳으로 편백나무숲, 하늘타리건강체험장, 호빛의 집, 문화유적길이 있으며, 최근 웰니스 관광지로 머제왓숲길(6.7km)이 각광 받고 있음
 - 신흥2리는 동백마을로 동백숲, 동백꽃이 있으며, 동백으로 비누 만들기, 동백음식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하효마을은 굴빛마을로 굴밭체험, 과즙만들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고 제주 올레길 5코스-6코스에 맞닿아 있는 쇠소깍과 한라산 현무암이 부서져 해안에 쌓인 검은 모래해변이 유명함
 - 치유의 숲은 총 11km 길이의 숲으로 야자수 껍질로 엮어 만든 매트와 나무길 등으로 산책로가 있어 10개의 테마 길이 있음
 - 신창리는 바다를 따라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해 있어 풍차해안도로를 따라 석양을 즐길 수 있으며, 바다 목장에서 스쿠버다이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음
 - 저지리는 예술인 마을로 예술인들을 통해 특색있는 건물들이 지어져 있으며, 저지 곳자왓, 저지오름 등의 생태관광자원도 소재하여 해설사와 함께 트레킹 및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음
 - 수산리는 치유여행지로 물피힐링팜, 물메밭담길, 수호목곰솔, 수산봉그네, 건강 트레킹 등을 체험할 수 있음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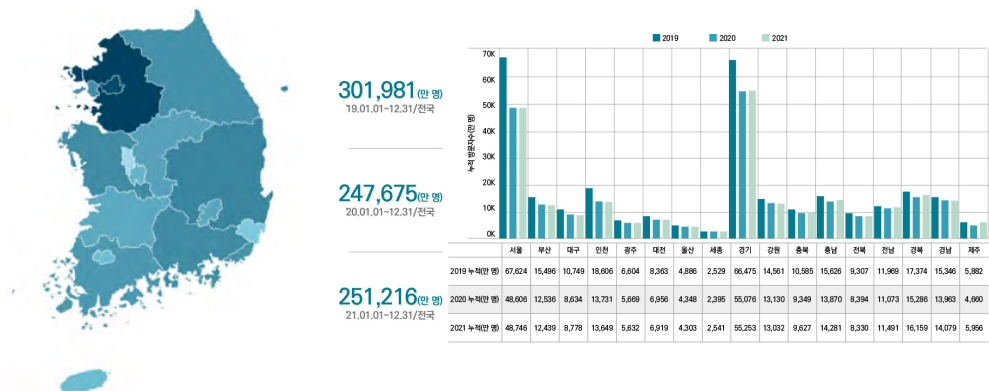
부산관광의 실태분석

1. 빅데이터 활용 방문행태분석

광역자치단체별 외부방문자 추세

-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최근 3년간(전체) 외부방문자 추이를 보면 경기도, 서울, 경북, 인천, 충남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 |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외부 방문자 추세



자료 : 한국관광 데이터랩(<https://datalab.visitkorea.or.kr>)

주 :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자 데이터(KT)를 활용하여 전체 방문객수를 추정. 실제 방문자수가 아닌 추정된 값이므로 해석 유의. 방문자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 장소에 일정시간 이상 머무른 사람으로 정의

- 연도별 외부 방문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경북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2020년에는 경기, 서울, 경북, 경남 순으로 나타남
- 2021년 외부 방문자 수는 경기, 서울, 경북, 충남 순으로 방문지역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부산시의 경우,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외부 방문자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 | 최근 3년간 광역지자체별 방문자수(2019~2021년)

(단위 : 명, %)

지역	총계	구분				
		2019		2020		2021
		외부방문자	외부방문자	전년대비 증감률	외부방문자	전년대비 증감률
전국	8,008,729,247	3,019,812,007	2,476,751,655	-17.98%	2,512,165,585	1.43%
서울	1,649,766,523	676,239,448	486,063,680	-28.12%	487,463,395	0.29%
부산	404,706,472	154,956,548	125,355,958	-19.10%	124,393,966	-0.77%
대구	281,608,030	107,487,542	86,338,895	-19.68%	87,781,593	1.67%
인천	459,857,381	186,061,142	137,306,507	-26.20%	136,489,732	-0.59%
광주	179,048,907	66,038,784	56,689,650	-14.16%	56,320,473	-0.65%
대전	222,374,554	83,628,100	69,557,253	-16.83%	69,189,201	-0.53%
울산	135,379,896	48,862,667	43,482,816	-11.01%	43,034,413	-1.03%
세종	74,646,992	25,285,404	23,948,388	-5.29%	25,413,200	6.12%
경기	1,768,044,069	664,749,407	550,763,372	-17.15%	552,531,290	0.32%
강원	407,229,776	145,612,023	131,296,509	-9.83%	130,321,244	-0.74%
충북	295,603,320	105,848,957	93,486,231	-11.68%	96,268,132	2.98%
충남	437,770,931	156,262,000	138,698,894	-11.24%	142,810,037	2.96%
전북	260,305,255	93,066,716	83,939,339	-9.81%	83,299,200	-0.76%
전남	345,335,003	119,694,029	110,730,837	-7.49%	114,910,137	3.77%
경북	488,186,377	173,737,828	152,858,211	-12.02%	161,590,338	5.71%
경남	433,883,799	153,464,716	139,633,588	-9.01%	140,785,495	0.82%
제주	164,981,962	58,816,696	46,601,527	-20.77%	59,563,739	27.81%

자료 : 한국관광 데이터랩(<https://datalab.visitkorea.or.kr>)

주 :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자 데이터(KT)를 활용하여 전체 방문객수를 추정. 실제 방문자수가 아닌 추정된 값이므로 해석 유의. 방문자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 장소에 일정시간 이상 머무른 사람으로 정의

- 최근 3년간 전체 부산시의 방문자수를 살펴보면, 부산진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해운대구, 기장군, 중구, 동래구, 수영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영도구, 강서구, 해운대구, 중구, 동구 등은 전년 대비 외부 방문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 | 최근 3년간 부산시 방문자수(2019~2021년)

(단위 : 명, %)

지역	총계	구분					
		2019		2020		2021	
		외부방문자	외부방문자	전년대비 증감률	외부방문자	전년대비 증감률	
강서구	96,620,675	34,407,288	29,517,691	-14.21%	32,695,696	10.77%	
금정구	81,216,316	29,893,737	25,425,951	-14.95%	25,896,628	1.85%	
기장군	111,029,821	35,699,702	37,494,715	5.03%	37,835,404	0.91%	
남구	84,986,211	31,160,096	27,125,577	-12.95%	26,700,538	-1.57%	
동구	81,529,868	32,155,347	24,423,328	-24.05%	24,951,193	2.16%	
동래구	99,881,927	37,658,330	31,885,075	-15.33%	30,338,522	-4.85%	
부산진구	195,938,200	73,688,720	61,438,072	-16.62%	60,811,408	-1.02%	
북구	66,465,841	21,536,954	22,560,554	4.75%	22,368,333	-0.85%	
사상구	78,692,739	29,567,391	24,770,187	-16.22%	24,355,161	-1.68%	
사하구	68,513,632	24,711,871	21,971,855	-11.09%	21,829,906	-0.65%	
서구	59,473,843	20,510,883	19,429,739	-5.27%	19,533,221	0.53%	
수영구	98,846,927	34,648,275	31,878,251	-7.99%	32,320,401	1.39%	
연제구	74,958,338	26,548,830	24,051,252	-9.41%	24,358,256	1.28%	
영도구	47,776,530	16,621,978	14,686,145	-11.65%	16,468,407	12.14%	
중구	107,870,708	40,819,089	33,045,096	-19.04%	34,006,523	2.91%	
해운대구	185,578,845	68,577,350	56,718,742	-17.29%	60,282,753	6.28%	

자료 : 한국관광 데이터랩(<https://datalab.visitkorea.or.kr>)

주 :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자 데이터(KT)를 활용하여 전체 방문객수를 추정. 실제 방문자수가 아닌 추정된 값이므로 해석 유의.
방문자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 장소에 일정시간 이상 머무른 사람으로 정의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수

-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에 따른 부산시 주요 관광지로는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해동용궁사, 다대포해수욕장 등 부산의 해수욕장 관련 목적지 검색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해수욕장 외에는 자갈치시장, 기장시장, 태종대, 국제시장, BEXCO 등이 부산시 주요 관광지로 나타남
- 데이터랩의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수는 자동차 이용객의 관광 목적지만 검색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방문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광지 이용통계 등의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다만, 2019년 이후 부산시 인기 관광지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송정해수욕장으로 변경된 것은 COVID-19의 영향으로 파악될 수 있음
- 또한 자동차 이용 외부 관광객의 경우, 감천문화마을 등 부산의 대표적인 공정관광 관광지는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 최근 3년간 부산 관광지 검색 순위(내비게이션데이터 외부관광객)

순위	관광지명	상세주소
1	해운대해수욕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	송정해수욕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712-2
3	광안리해수욕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4	해동용궁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용궁길 86
5	다대포해수욕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6	자갈치시장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	기장시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8	태종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 24
9	국제시장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4가
10	BEXCO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11	송도해수욕장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2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626
13	부산진시장	부산광역시 동구 진시장로 24
14	부산시민공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15	일광해수욕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섬리
16	범어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순위	관광지명	상세주소
17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9번길 11
18	해운대달맞이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90
19	기장해녀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20	부산어린이대공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자료 : 한국관광 데이터랩(<https://datalab.visitkorea.or.kr>)

주 : 1) 내비게이션(Tmap)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한 사람, 타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사람들의 특성은 반영되지 않음. 차량이동에 대한 조회건수로 방문자수 추계가 불가함

2) 인기관광지에서 쇼핑센터와 호텔, 공항, 항구는 제외함

표 3-4 | 2019~2021년 부산시 주요 인기 관광지(내비게이션데이터 외부관광객)

순위	관광지명		
	2019	2020	2021
1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2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3	해동용공사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4	송정해수욕장	해동용공사	해동용공사
5	자갈치시장	다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
6	BEXCO	기장시장	기장시장
7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송도해수욕장
8	태종대	송도해수욕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
9	다대포해수욕장	태종대	BEXCO
10	기장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태종대
11	송도해수욕장	국제시장	국제시장
12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일광해수욕장	자갈치시장
13	송도해상케이블카	BEXCO	일광해수욕장
14	부산시민공원	부산진시장	부산진시장
15	부산진시장	부산시민공원	부산시민공원
16	감천문화마을	범어사	범어사
17	부평광통시장	해운대달맞이길	엄궁농산물도매시장
18	백스코제2전시장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해운대달맞이길
19	렛츠런파크부산경남	기장해녀촌	기장해녀촌
20	사직야구장	부산어린이대공원	부산어린이대공원

자료 : 한국관광 데이터랩(<https://datalab.visitkorea.or.kr>)

주 : 1) 내비게이션(Tmap)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한 사람, 타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사람들의 특성은 반영되지 않음. 차량이동에 대한 조회건수로 방문자수 추계가 불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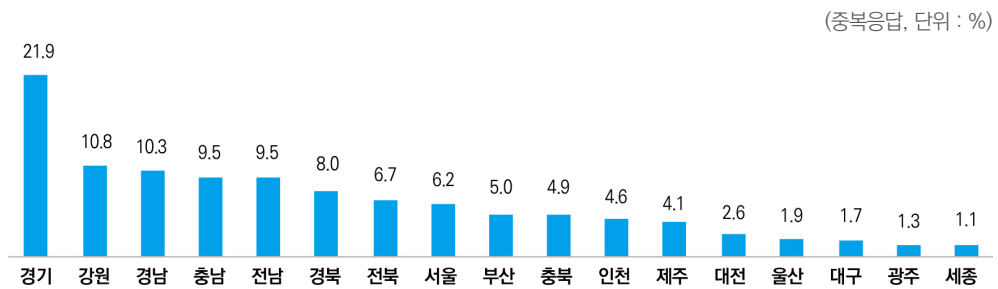
2) 인기관광지에서 쇼핑센터와 호텔, 공항, 항구는 제외함

2. 부산관광 실태분석

국내 여행 방문실태¹⁾

- 2020년 기준 국내 여행 방문지는 경기도가 2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강원(10.8%), 경남(10.3%), 충남(9.5%), 전남(9.5%) 등의 순임

그림 3-2 | 2020년 국내 여행 방문실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 국민여행조사

표 3-5 | 2020년 국내여행 방문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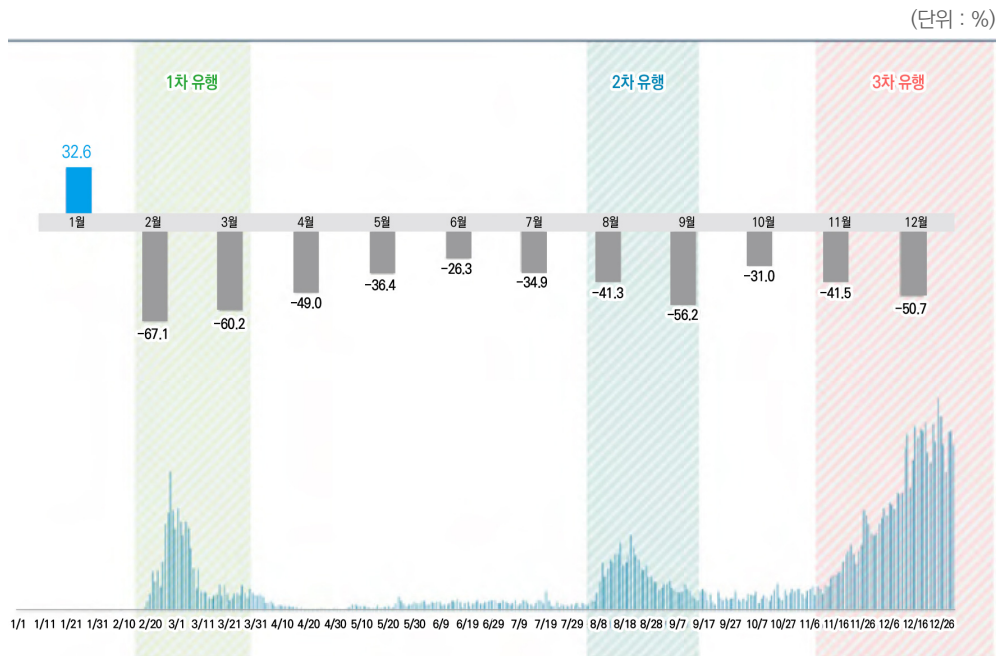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가구원수			
		남자	여자	15세~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인	2인	3인 이상
서울	6.2	6.6	5.7	12.8	9.2	6.0	5.1	4.6	4.4	6.2	4.6	5.1	6.8
부산	5.0	5.1	4.9	6.3	7.0	5.9	4.3	4.0	3.5	3.1	5.3	4.5	5.1
대구	1.7	1.7	1.7	2.0	1.7	1.7	1.8	1.5	1.6	1.8	1.9	1.7	1.6
인천	4.6	4.6	4.6	3.7	5.3	4.2	5.0	4.1	4.6	3.6	5.0	3.8	4.7
광주	1.3	1.4	1.2	1.1	1.4	1.0	1.1	1.4	1.7	2.2	1.6	1.5	1.2
대전	2.6	2.8	2.3	1.9	2.6	3.4	2.3	1.9	2.7	2.5	3.2	2.9	2.3

1)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국민여행조사를 토대로 분석. 국민여행조사는 2018년부터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방식으로 월별 조사되고 있음. 조사방식 변경으로 2017년까지의 조사결과와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여행의 공간적 범위는 특/광역시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 또는 구 내에서의 이동을 비여행으로 분류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가구원수		
		남자	여자	15세~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인	2인	3인 이상
울산	1.9	2.2	1.6	2.0	1.5	1.9	1.7	2.1	2.3	2.5	2.0	2.3	1.8
세종	1.1	1.4	0.9	1.2	1.0	1.6	1.2	1.0	0.6	0.9	1.2	1.2	1.1
경기	21.9	21.5	22.4	24.6	21.7	24.6	20.8	20.1	21.4	23.3	22.8	19.2	22.7
강원	10.8	10.6	10.9	7.5	12.3	10.4	11.8	10.5	10.9	5.0	10.5	9.5	11.3
충북	4.9	.9	4.8	3.1	3.3	4.9	5.4	6.1	4.5	5.6	4.7	4.8	5.0
충남	9.5	10.0	8.9	7.3	8.5	9.5	10.2	10.2	9.6	8.3	9.3	9.3	9.6
전북	6.7	6.8	6.5	6.0	6.3	6.5	6.9	7.0	6.4	7.2	7.0	7.5	6.3
전남	9.5	9.5	9.4	8.2	9.4	7.9	9.0	10.3	10.8	12.9	8.7	12.0	8.8
경북	8.0	8.4	7.6	7.8	6.3	7.0	8.5	9.4	9.3	7.8	7.6	8.7	7.8
경남	10.3	10.4	10.3	7.6	7.9	10.4	10.8	11.8	11.6	10.4	10.3	11.9	9.8
제주	4.1	3.6	4.6	2.6	3.4	5.1	4.3	4.9	2.4	3.0	4.2	2.8	4.5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 국민여행조사

그림 3-3 | 2020년 국내여행 일수 증감률(2019년 대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국민여행조사 결과

- 관광여행 시 방문지 선택 이유는 볼거리 제공(18.8%), 여행지 지명도(18.5%), 여행할 수 있는 시간 11.8%, 이동거리 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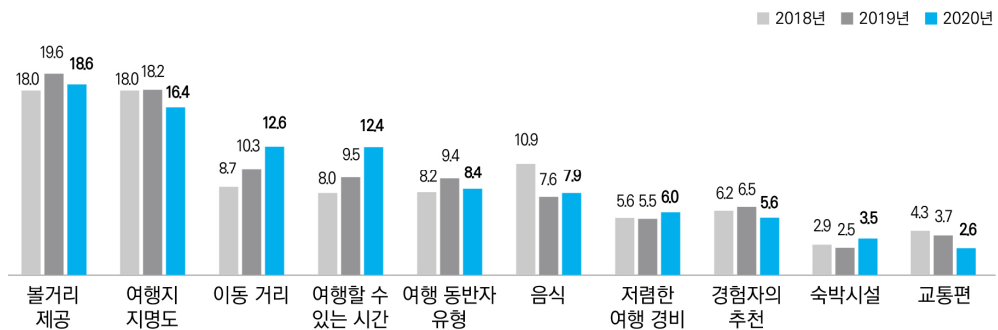
표 3-6 | 여행 방문지 선택 이유

(단위 : %)

구분	볼거리 제공	여행지 지명도	여행할 수 있는 시간	이동 거리	여행 동반자 유형	숙박 시설	경험자의 추천	음식	저렴한 여행 경비	관광지 편의 시설
1순위	18.8	18.5	11.8	9.1	8.9	8.6	6.0	5.3	5.0	2.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 국민여행조사

그림 3-4 | 여행 방문지 선택 이유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 국민여행조사

- 관광여행 시 정보획득 경로는 ‘과거 방문 경험’이 3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변인(친지/친구/동료 등)’ 29.1%, ‘인터넷 사이트/모바일 앱’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숙박이나 당일여행의 경우 정보없이 방문하는 상황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 3-7 | 여행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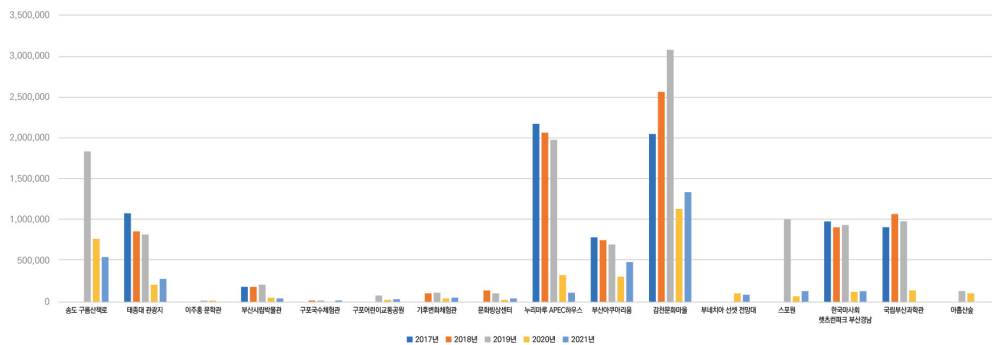
구분	과거 방문 경험	주변인	인터넷/모바일	기사 및 방송	광고	관광 안내서적	여행사	기타	정보 없이 방문
전체	32.9	29.1	12.5	2.1	1.7	0.4	0.3	0.1	20.9
숙박	33.3	29.9	16.7	2.2	17	0.5	0.4	0.2	16.2
당일	32.7	28.5	9.7	1.9	1.6	0.3	0.3	0.1	25.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국민여행조사

부산시 주요 관광지 방문실태

- 최근 5년간 부산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현황을 살펴보면, 감천문화마을이 10,170,899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누리마루 APEC하우스, 태종대, 송도구름산책로, 국립부산과학관 등으로 나타남

그림 3-4 | 여행 방문지 선택 이유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www.tour.go.kr/>)

표 3-8 | 부산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2017~2021년)

군구	관광지	총계	(2017년 ~ 2021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35,337,049	8,159,615	8,628,120	11,963,090	3,356,377	3,229,847
서구	송도구름산책로	3,143,767	-	-	1,839,121	763,991	540,655
영도구	태종대 관광지	3,236,917	1,083,127	851,717	821,479	207,225	273,369
동래구	이주홍 문학관	6,963	-	-	6,085	878	-
남구	부산시립박물관	650,368	178,400	183,074	209,296	41,197	38,401
북구	구포국수체험관	26,897	-	9,707	7,574	-	9,616
	구포어린이교통공원	116,629	-	-	68,961	21,304	26,364
	기후변화체험관	282,069	-	99,709	105,992	33,478	42,890
	문화빙상센터	284,733	-	130,178	97,789	17,482	39,284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	6,653,384	2,175,404	2,064,685	1,979,856	321,345	112,094
	부산아쿠아리움	3,008,313	782,621	744,998	696,865	302,206	481,623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10,170,899	2,050,297	2,570,521	3,082,289	1,133,300	1,334,492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	183,330	-	-	-	100,441	82,889
금정구	스포원	1,198,195	-	-	1,006,806	66,971	124,418
강서구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3,057,192	981,213	906,717	932,380	113,130	123,752
기장군	국립부산과학관	3,097,330	908,553	1,066,814	984,812	137,151	-
	아홉산숲	220,063	-	-	123,785	96,278	-

- 한국관광 100선(2021~2022년)에 선정된 부산시 관광지는 태종대유원지, 감천문화마을, 해운대해수욕장, 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 용궁구름다리&송도해수욕장, 다대포꿈의낙조분수&다대포해수욕장(신규), 흰여울문화마을(신규), 송정해수욕장(신규) 8곳임
 - 부산시는 감천문화마을, 흰여울문화마을, 호천마을, 만덕레고마을, 초량이바구길 등 산동네가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는 특이점이 있음

표 3-9 | 부산시 역대 한국관광 100선 선정 관광지

연도	개수	관광지
2021~22 (5회)	8	태종대유원지, 감천문화마을, 해운대해수욕장, 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 용궁구름다리&송도해수욕장, 다대포꿈의낙조분수&다대포해수욕장, 현여울문화마을, 송정해수욕장 * 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 : 중구 부평, 광복, 남포동, 중앙, 동광, 대청 등, 용두산 공원 광복로패션거리,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부평강통야시장, 영도대교, 보수동책방골목 부산근대역사관 등
2019~20 (4회)	6	해운대해수욕장, 태종대, 자갈치시장, 송도해수욕장, 마린시티, 감천문화마을
2017~18 (3회)	4	감천문화마을, 국제시장 & 부평강통시장, 부산 원도심 스토리투어, 태종대
2015~16 (2회)	3	감천문화마을, 태종대, 해운대 해수욕장
2013~14 (1회)	2	해운대, 태종대

주요 관광지 연도별 방문실태

- 최근 3년간 부산시 주요 관광지를 순위를 살펴보면, 사하구의 ‘감천문화마을’이 약 679만 명으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인 것으로 나타남
 - 감천문화마을은 1950년대 6·25 피난민의 삶의 터전으로 산자락을 따라 계단식 집단 주거형태로 되어있으며, 파스텔톤의 집들과 미로 같은 골목으로 한국의 마추픽추, 산토리니로 불림
 - 그 다음으로는 해운대구의 누리마루 APEC하우스, 문화빙상센터, 송도구름산책로, 국립부산과학관 등으로 나타남
 - 부산시의 주요 인기관광지를 보면, 2018년과 달리 2019년에 송도구름산책로와 스포원, 아홉산숲이 새로운 주요 관광지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가 새로운 관광지로 나타남

표 3-10 | 최근 3년간 부산시 주요 인기 관광지(2018-2020년)

(단위 : 명)

NO	부산시	관광지	'18~'20년 입장객 총계	상세주소
1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6,786,1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내1로 200
2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	4,365,88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동백로 116
3	서구	송도구름산책로	2,603,112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29-4
4	기장군	국립부산과학관	2,188,7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6로 59
5	강서구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1,952,227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가락대로 929
6	영도구	태종대	1,880,421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 257
7	해운대구	부산아쿠아리움	1,744,06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6
8	금정구	스포원	1,073,777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399번길 324
9	남구	부산시립박물관	433,567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63
10	북구	문화빙상센터	245,44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434
11	북구	기후변화체험관	239,179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학사로 118
12	기장군	아홉산숲	220,063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미동길 37-1
13	사하구	부네치아선셋전망대	100,44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장림로93번길 72
14	북구	구포국수체험관	17,28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구포만세길 109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www.tou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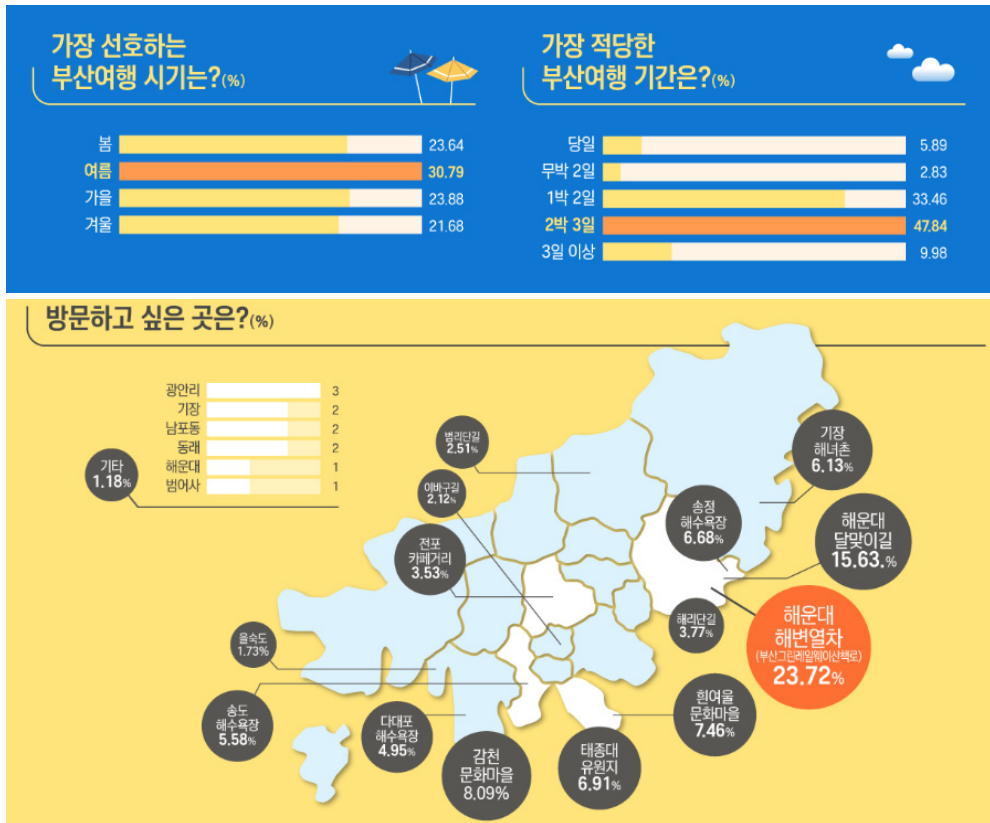
표 3-11 | 연도별 부산시 주요 인기 관광지(2018-2020년)

순위	관광지명		
	2018	2019	2020
1	감천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
2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송도구름산책로
3	국립부산과학관	송도구름산책로	누리마루 APEC 하우스
4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스포원	부산아쿠아리움
5	태종대	국립부산과학관	태종대
6	부산아쿠아리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국립부산과학관
7	부산시립박물관	태종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8	문화빙상센터	부산아쿠아리움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
9	기후변화체험관	부산시립박물관	아홉산숲
10	구포국수	아홉산숲	스포원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www.tour.go.kr/>)

- 부산관광포털의 비짓부산 만족도 조사(2021)에 따르면, 부산의 가장 선호하는 여행 시기는 여름(39.79%)이며, 약 2박 3일간의 여행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여행 활동으로는 맛집/먹방 투어가 40.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힐링(19.08%), 호캉스(19.08%)로 나타남
 -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는 해운대 해변열차가 2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운대 달맞이길 15.63%, 감천문화마을 8.09%, 태종대유원지 6.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 | 부산관광 만족도 조사 결과(2021)



출처 : 비짓부산 홈페이지(<https://www.visitbusan.net/>)

부산 마을단위 관광지 현황

- 부산시의 마을단위 관광지에는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서구 비석마을, 영도구 흰여울 문화마을, 부산진구 호천마을, 동구 초량이바구길 등이 있음
- 감천문화마을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미술작가들의 창작 공간이 들어서 골목마다 다양한 조형작품과 갤러리 벽화 등을 감상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이전에는 마을주민 주도의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를 운영하였으며 2018년 부산시 우수축제로 선정될 만큼 부산시의 인기 관광지임
- 비석마을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공동묘지가 1950년 한국전쟁 발발에 따라 피란민들이 이곳에 모여 판자를 덧대고 집을 지어 살면서 형성된 마을로 피란민의 생활과 주거 모습이 보존 되어 있음
 - 비석문화마을은 감천문화마을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형성되어 있으며, 아미동 일대의 당시 일본인 공동묘지의 비석이 계단, 담장 부재, 옹벽, 주춧돌 등으로 사용된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있고 현재 무덤 비석 등으로 만든 집이 9채가 남아 있음
 - 비석마을에 남아있는 이발소, 구멍가게 등 전시공간을 피란생활박물관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비석 실물을 전시하여 당시 피란민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부산시는 피란 수도의 유산 중 하나인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를 부산의 첫 번째 등록문화재로 등재(’22.1.5)하였으며, 비석마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
- 흰여울문화마을은 절영해안산책로 담벼락 위에 위치한 마을로 해안가 절벽 끝의 바다를 따라 난 좁은 골목길에 집들이 형성되어 있음
 - 감천문화마을처럼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정착한 마을로 산비탈의 형형색색의 주택이지만 마을 앞에 남해 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특징이 있음
 - 흰여울길은 세로로 총 14개 골목으로 이어져 있고 절영로가 생기기 이전에는 마을의 담장을 따라 태종대로 가는 유일한 길임

- 달동네였던 마을은 2003년부터 많은 한국 영화의 배경이 되어 유명해지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빈집과 폐가를 문화·예술공간 사업에 따라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음

그림 3-6 | 감천문화마을(좌)와 흰여울문화마을(우)



연구자 촬영 : 2022. 4. 27

- 호천마을은 산복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임
 -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파른 계단이 많다는 특징이 있으며, 부산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으로 야경명소임
- 초량 이바구길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테마거리로 해방 후 피난민들의 생활터전인 초량동이 모습을 현재까지도 간직하고 있어 1950~60년대 모습, 산업 부흥기였던 1970~80년의 부산의 모습을 볼 수 있음
 - 부산 최초의 근대식물창고인 남선창고를 시작으로 옛백제병원건물, 168계단 등을 포함한 1.5km 되는 길로 계단이나 모노레일을 통해 관광할 수 있음
 - 부산시는 2011년 산복도로 일원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참여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골목길을 정비하여 초량 이바구길을 관광지화 함

부산 감천문화마을 공정관광 운영현황

- 산자락을 따라 형성된 계단식 집단 주거형태와 모든 길이 통하는 미로형 골목길로 독특한 지역특성을 지니는 감천문화마을은 지역 예술인과 마을 주민이 함께 추진한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인하여 문화마을로서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며 많은 방문객이 마을을 방문하기 시작
 - 2010년 주민 운영협의회로 최초 결정성된 마을주민 협의체는 2012년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2013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됨
-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게 되어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가 마을방문 시 유의사항 등을 공지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공정관광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감천문화마을 안내센터를 운영하며, 마을방문객을 위한 골목투어 지도 판매, 물품 보관소 운영, 마을 해설사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음
 -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2014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으며, 다양한 기념품을 자체 제작하고 상점 운영 등을 통해 창출된 이윤을 감내 빨래방·목욕탕 운영, 김장 나누기 등 다양한 주민복지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있음
- 2016년 5월부터 예약하지 않은 관광버스는 입구에서 출입을 금하며, 단체관광의 경우 예약을 해야만 관광을 허용
 - 개별관광객의 경우에도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진촬영 금지, 소음 및 무단 쓰레기 금지 등 마을 방문 에티켓을 공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드론 촬영 또한 금지하며 마을 방문의 관광행동 양식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3-7 | 감천문화마을 안내센터(좌)와 마을 방문객 에티켓(우)



연구자 촬영 : 2022. 4. 27

-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방문객에게 공정관광의 실천을 안내하기 위해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감천문화마을신문 등을 발행하며 소통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감천문화마을신문은 2012년 8월 주민 스스로 마을신문을 창간하여 2020년 11월, 100호를 창간하였으며, 2015년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소식지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될 정도로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음
- 2020년 10월에는 코로나 여파로 제10회 감천문화마을 축제 개최가 어려워지자, 감천집 등 밝히기 행사 등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고하기도 함
- 손관암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전 회장님에 따르면, 현재 마을협의회는 120명의 주민들로 구성, 지도 및 기념품 판매 등의 수익 환원 등에 관한 운영체계 마련

 -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마을을 훼손하는 ‘관광객’이라고 칭하지 않고 ‘방문객’이라고 통칭하며, 마을주민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방문객을 맞이하는 ‘호스트’의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강조

- 매월 5천 원씩 자체 회비를 모금하여 주민협의회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활용하며, 문체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등 각종 정부 공모 사업에 지원하여 마을에 필요한 공간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실시
-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대해서는 마을 상인회가 매일 아침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마을청소 및 질서 유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IV

해외 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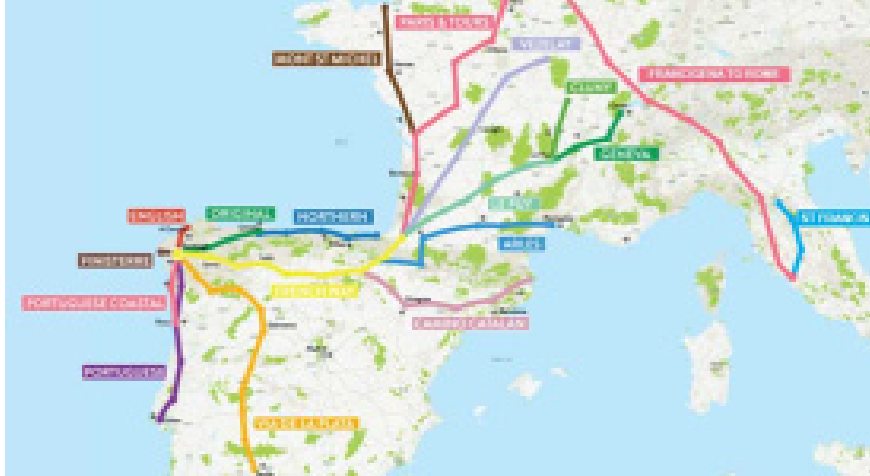
1. 유럽의 공정관광 정책사례

1)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대상지 개요

-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은 스페인 갈라시아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 산티아고로 가는 길)’로 알려진 길은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성당 지하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의 무덤으로 가는 순례길임
 - 콤포스텔라까지의 여정은 다양하나 프랑스와 스페인의 접경 근처에 있는 프랑스 생 장 피에 드 포르(Saint-Jean-Pied-de-port)에서 시작하여서 스페인 북부지역을 가로질러 가는 ‘카미노 데 프랑세스(프랑스 길)’가 대표적이며, 약 800km를 도보로 순례하는 것이며, 한 달 이상 동안 하루 25km를 걸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음
 - 11세기 동안 문화유적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으며, 프랑스의 길과 스페인의 북부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받음

그림 4-1 | 까미노 데 산티아고의 다양한 루트



출처 : <http://caminoways.com/camino-de-santiago>

추진배경

- 산티아고 순례길은 9세기 예수의 제자인 야고보의 무덤 이후 성지로 부상하였으며, 11세기 동안 역사적 유산, 문화콘텐츠, 자연경관 등을 결합하면서 발전해 옴
 - 순례길에는 교회, 수도원, 병원, 호스텔, 여행자 숙소, 다리, 교차로, 기타 건축물 등 까미노 데 산티아고와 관련된 유산들이 있어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부터 바로크 양식으로 변화하는 예술 및 건축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순례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음
 -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는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격은 7유로~15유로 사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까미노 관련 홈페이지, 각 국의 산티아고순례자협회, SNS 에서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Camino Pilgram 앱은 무료로 e-book을 제공하여 스페인-프랑스에 도착하여 순례를 시작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방법, 짐 패킹 방법 등과 지도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간별 편의시설, 고도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순례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

세부추진내용

-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1993년)받은 프랑스 길과 스페인 북부길은 스페인 정부 차원에서 순례길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프랑스 산티아고 순례길은 5개의 자치단체와 100개가 넘는 마을을 지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유산을 보호하고 있음

표 4-1 | 스페인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년도	법·제도	유산 보호 및 관리 내용
1985년	스페인 역사유산법보호 제도	•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최고 수준인 역사복합단지의 범주에 속하는 문화적 관심 유산(BIC, Bien de Interés Cultural)으로 등록
1988년	아라곤 조례 제96호	• 까미노 데 산티아고의 회복 및 재생을 위한 기술조정위원회를 조직
1988년	나바라 특별조례 제290호	• 나바라 내에서 까미노 데 산티아고의 경계선을 설정했고, 보호제도를 수립
1999년	스티아이레온 조례 제324호	• 까미노 데 산티아고(프랑스 까미노) 역사 단지(Conjunto Histórico) 선언에 포함될 지역의 범위를 명시
1991년	야고보 회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을 관할 관리하는 행정기관들에게는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 제기 • 순례길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과 각종 조치, 홍보와 문화 전파, 역사-예술 유산의 보존 및 복원, 관광 규제 및 홍보, 순례자 지원에 협조한다는 목표로 '야고보 회의' 설립
2009년	야고보 회의 재조직 왕령 제1432호 제정	• 관리기관으로서 의무 강화를 위해 순례길이 통과하는 자치단체(갈리시아, 라 리오하, 아라곤, 나바라, 카스탈-레온)와 교육·문화·스포츠부가 참여하는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협력위원회(Cooperation Committee for the Management of the World Heritage Site)'가 조직
2011년	갈리시아 조례 제227호	• 까미노 데 산티아고의 주된 여정의 경계를 설정하여 유산의 해당 부분을 보호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2433&cid=50407&categoryId=50408>에서 정리, 여기서는 이소영 외(2017)에서 재인용

순례자가 지켜야 할 까미노(Camino) 십계명

1. 다른 순례자의 생각이나 차림에 지나친 관심이나 간섭은 불쾌함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2. 까미노는 순례자뿐이 아니라 현지인도 사용합니다. 쓰레기는 꼭 배낭에 챙겨 주세요.
3. 잘못된 여행기를 믿고 까미노 주위의 농산물을 따서 현지인과 마찰을 일으키지 마세요.
4. 마을을 지날 때에는 스틱의 소리를 줄이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 주세요.
5. 물과 행동식을 미리 준비해서 다른 순례자의 것을 축나게 하지 말아 주세요.
6. 다른 순례자가 한다고 까미노의 길 벽이나 길 안내판에 낙서를 하지 마세요.
7. 사진을 찍을 때에는 상대방의 양해를 먼저 구하며, 실내 스트로브 사용에 주의하세요.
8. 식당에서는 미사 시간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명상이나 기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9. 다른 순례자와 식사를 할 때에는 식사 예절을 지키고 식당에서는 더치페이를 지키세요.
10. 여럿이 무리를 지어 횡으로 나란히 걷는 것은 다른 순례자의 동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산티아고 순례자 협회(<http://caminocorea.org/>)

- 순례자 전용 숙소 알베르게는 종류는 수도원, 공립, 시립이 있으며, 비용 지불 방식에 따라서 기부제와 요금제가 있음
 - 기부제는 수도원이나 공립 알베르게에서 입구에 기부함을 두고 일정 금액을 넣고 사용하는 방식이며, 요금제는 5~15유로 사이임
 - 사설 알베르게외 알베르게는 사전예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착한 순서대로 배낭을 줄 세워 대기해야 하며, 순례자 여권인 크레덴시알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함
 - 알베르게는 다수의 사람이 공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순례자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시설과 도구들을 사용해야하며 조용하게 생활하는 것이 에티켓임

순례자가 지켜야 할 알베르게 십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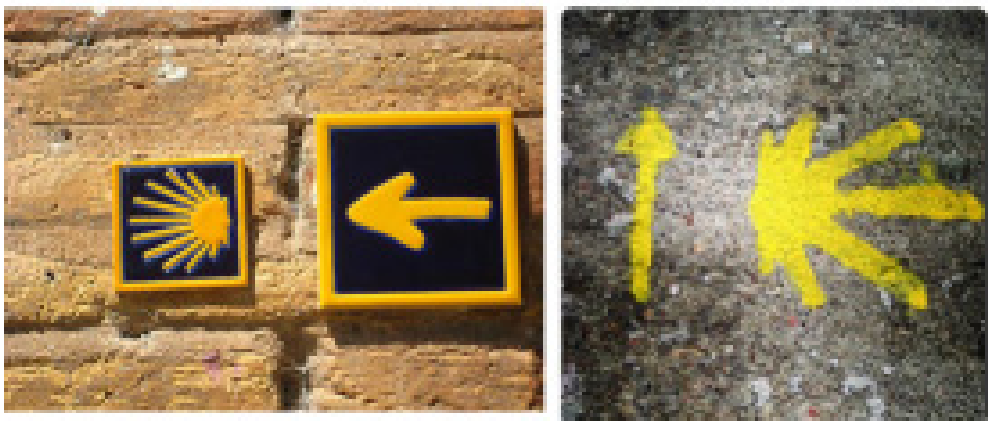
1. 코를 심하게 고는 순례자라면 출발 전 적절한 방법을 찾으세요.
2. 다른 순례자들의 코골이 혹은 소란에 너무 민감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당신과 같은 순례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성수기에는 침대 경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양보의 미덕을 가지세요.
4. 2층 침대의 아래 칸은 항상 여성과 노약자에게 양보하세요.
5. 봉사자는 당신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항상 그들을 도와주세요.

6. 등산화와 스틱은 반드시 흙을 잘 털어서 알베르게 입구의 지정된 장소에 두세요.
7. 사용한 식기와 식사한 자리는 다음 사람을 위하여 깨끗이 치우세요.
8. 정도를 넘는 음주는 소란함을 만들고 다른 순례자와 마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9.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 다른 순례자의 수면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10. 알베르게를 나설 때는 말소리나 스틱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하세요.

출처 : 대한민국 산티아고 순례자 협회(<http://caminocorea.org/>)

- 순례자의 길은 5~10m 간격으로 노란 화살표를 통해 길 및 기타 편의시설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984년 성직자 Elias Valina에 의해 고안된 노란색 화살표는 1985년 까미노친구 연합(Associations of Friends of the way of Saint James)회를 통해서 프랑스 길 전체에 그려졌음
 - 노란색 화살표와 가리비 표시가 그려져 있으며, 순례길 루트를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길은 표시물이 많아 순례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Caminoway.com에서 무료제공하는 ebook과 Camino Polgrim(까미노 필그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양한 후기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그림 4-2 | 길 안내를 하는 노란색 화살표



출처 : <https://sharehows.com/camino-de-santiago3>

2) 이탈리아 베니스 공정관광 사례

대상지 개요

- 라틴어로 '계속해서 오라'라는 의미를 가진 베니스는 크고 작은 운하가 만들어낸 도시로 "물의 도시"로 불리며, 물길을 따라 미로 같은 골목이 얽혀 있는 인공 섬으로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임
 - 베니스는 118개 섬과 200여 개의 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400여개의 다리와 골목, 건축물을 지녀, 중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임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마르코 광장' 주변에는 산마르코 대성당과 종루, 두칼레 궁전, 시계탑 박물관 등이 있음
 - 베니스 대운하인 '카날 그란데'를 시작으로 여러 갈래의 작은 운하가 섬 전체를 이루고 있어 자동차와 버스가 없어 유일한 교통 수단인 곤돌라, 바포레토(수상버스)를 통해 운하 사이를 이동할 수 있음

추진배경

- 베니스는 2017년 기준으로 매일 6~12만 명, 연간 2,4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매일 3~4만 명의 관광객들이 대형 크루즈를 통해 방문
 - 특히, 4~10월에 일평균 3만 2천 명의 크루즈 관광객으로 지역의 관광 수용력을 초과함
 - 관광객들의 급증에 따라 소음이 증가하고 임대료나 생활비 증가,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에 따라 지역민의 정주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1955년 17만 5천 명이었던 인구가 2017년 기준으로 5만 4천 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로 인해 2016년 11월, 지역주민 주도의 대형 크루즈 반대 및 관광객 거부 시위가 발생

- 베니스에 최대 12척 이상의 크루즈선이 동시 입항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크루즈선이 엔진을 밤새 켜 채로 머물게 되면서 소음, 진동, 해수 탁도, 선박 간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
- “베니치아 대탈출(Veneodus)²⁾” 시위와 대형 크루즈 입항 반대 시위가 펼쳐짐

그림 4-3 | 베니스 관광객 및 대형크루즈 반대 시위



출처 : 경향신문(2016.11.13), 국민일보(2019.2.5)

세부추진내용

- 베니스는 대형 크루즈 입항 금지, 도시 일일 입장객 수 조절, 역사지구엔 호텔 신축 금지 등을 추진
 - 2017년 이탈리아 정부는 10만 톤 이상의 크루즈선이 베니스 대운하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크루즈선이 마르제라 지역으로 우회하도록 관리
 - 2021년부터는 5,500톤 이상의 크루즈선이 세인트 마크 주데카섬(Giudecca) 운하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함
 - 차량의 경우, 사전에 주차공간 확보한 경우에만 입차가 가능

2) 시위대는 베네치아(Venice)와 대탈출(Exodus)을 합친 '베네소더스(Venexodus)'를 적은 현수막을 걸고 여행가방을 들고 나와 여행객들 때문에 자신들이 베네치아를 떠나야 하는 현실을 비유하였음(경향신문, <https://m.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1611131623011#c2b>, 2016.11.13일자)

- 베니스로의 출입통제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베니스의 본토와 연결된 다리(4개)에 교통경찰이 일일 입장 관광객 수를 조절하며, 산마르코광장 등 주요 관광지점에서의 관광객 수를 수시로 확인하여 관광객의 접근을 제한함
- 베네치아 관광 시 소음 발생, 공공장소 수영복 착용, 쓰레기 투척, 운하 수영 등 적발 시 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반면, 지역주민에게는 수상버스 우선 탑승권을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함
- 그 외에 성수기 및 연휴기간에는 관광객을 이면도로 및 비인기지역으로 관광객 분산을 유도하고 있음

베니스의 관광객 행동 규칙(책임 있는 관광객을 위한 12가지 규칙)

1. 방문객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베니스의 숨은 보물 발견하기
2. 각각의 섬들에서 펼쳐지는 축제에 참가하기
3. 베니스 특산식품과 전형적인 베니스음식 맛보기
4. 장인의 상점을 방문하여 진품을 구매하기(불법제품 구매 금지)
5. 베니스의 역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양질의 가이드를 예약하기
6. 다리에서는 우측보행하고, 멈춰있지 말고 손잡이 덜 만지기
7. 유적들은 소풍장소가 아니므로 필요 시 공원 활용하기
8. 유적지인 성마르코 광장에서 음식물 취식하지 않기
9. 캠핑, 수영복착용 홍보, 다이빙, 수영 금지
10. 그래피티, 자물쇠설치, 반달리즘, 비둘기모이 금지
11. 아파트 숙박 시 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해 숙달할 것
12. 베니스가 덜 붐비는 시기에 여행계획 수립



출처 : <https://skift.com/2017/07/27/venice-is-tackling-over-tourism-by-telling-tourists-to-follow-the-golden-rule/>; 박주영 외(2018)

- 또한, 베니스는 숙박관광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유로의 관광세를 부과(5일간 적용)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는 당일 관광객은 비수기 방문 시 3유로, 성수기 방문 시 10유로의 관광세를 지불해야 함
 - 관광세 수입을 통해 과잉관광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표 4-2 | 베니스 관광세

구분	내용
숙박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세 부과: 최대 5박 • 숙박유형별 관광세: 5스타 3유로, 4스타 2유로, 3스타 1.5유로 • 14세 이하 무료
당일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기: 3유로 • 성수기: 10유로

출처 : <http://www.italyvacation.com/tourist-city-taxes-italy>; 황희정(2021)

2. 일본의 공정관광 정책사례

1) 나가노(長野)현 고모로(小諸)시 사례

대상지 개요

- 고모로시는 일본 중부지방 나가노(長野)현 동부에 위치하는 인구 약 40만 명의 도시임
 - 수도권에서 자동차로 3시간, 열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며, 북동쪽에는 2,000m가 넘는 활화산인 아사마산과 아사마 연봉, 다카미네(高峰)고원이 자리잡은 자연자원이 풍부한 곳임
- 시내에는 고모로 성과 에도시대 이전부터 존재하는 호쿠리쿠가도의 역사적 거리가 위치하기도 하였으며, 일본의 낭만주의 대표 소설가인 시마자키 도손(島崎 藤村)을 비롯한 유명한 문예가들의 인연이 있는 문화도시이기도 함
- 연간 약 18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고모로시에는 고모로역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예 순회 구역, 아사마산·다카미네 고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체험 액티비티 구역, 지쿠마천·중산간지 주변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 생활문화 공존 구역으로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구분
 - 각 구역마다 일정한 인기는 얻고 있으나, 고모로 브랜드로서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이루고 있지는 못함

추진배경

- 고모로시도 다른 일본의 지방도시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 인구의 감소, 지역경제의 침체 등의 지역문제가 발생
 - 도시의 활기를 유지하고 젊은 사람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관광을 통한 교류인구 증가 시책에 관심을 가짐
- 고모로시에는 호텔 및 여관, 음식점, 특산물 가게 등 다양한 관광 유관업체가 존재하나, 관광협회, 호텔여관조합, 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고모로시는 유관단체들의 개별화로 인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실현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관광활성화에 관한 비전을 관련 단체 모두가 공유하고 고모로시 전체가 ‘관광지역만들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이에 2013년 고모로시는 ‘관광지역만들기 비전 검토회’를 설치하여, 고모로시 관광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
 - 검토회는 관광협회, 호텔여관조합, 관광가이드협회, 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 농협, 상공회의소, 청년회의소, JR(Japan Railways), 택시협회, 버스회사, 가로 연구회, 숙박 업체, 상가진흥조합 등 관광 관련업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농업, 상공업, NPO, 일반시민 등 약 20명의 대표자로 구성

표 4-3 | 고모로시의 현황 및 과제

현황	과제
• 고모로시 전체로 관광지역만들기에 대한 비전·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음	• 관광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명확화와 공유
• 지방행정과 각 단체·조직의 연계가 희박	• 개개가 아니고 전체로 지역을 경영하는 시대에 맞는 대응
• 주민들의 향토애 저하, 관광 교류객에 대한 수용과 대접 의식이 부족	• 주민의 관광의식 향상
• 관광 관련 인프라시설 정비 미흡	• 인프라시설 정비
• 관광상품이 부족	• 관광플랜 개발
• 관광지역만들기 추진 리더가 부재	• 전문가 유치, 인재 육성

출처 : 小諸市 観光地域づくりビジョン検討会(2016)

- 고모로시와 관광지역만들기 비전 검토회는 2016년에 ‘고모로 관광국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일반사단법인 고모로 관광국’을 설립
 -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고모로시 관광협회 대신 그 역할을 사단법인 고모로 관광국이 맡고 있으며, 2018년 ‘사단법인 고모로 관광국’이 관광청에서 일본판 DMO로 인정됨
- 일본의 공정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서 추진되고 있는데, 2015년 DMO(Destination Management/Marketing Organization)제도 등을 실시하며 지자체와 관광지역만들기를 연계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DMO제도는 지방창생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각 분야의 여러 사업들을 통해 실시해온 관광사업 활성화를 DMO가 일원화하여 추진하도록 제도화함

일본의 DMO 제도

- 일본의 DMO란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역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조성하는 관광지경영의 마인드를 가지며 관광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중핵적인 주체로서,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하면서 명확한 콘셉트에 의거한 관광지역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책정함과 더불어 전략을 착실히 실시하기 위한 조정기능을 갖춘 법인조직’을 의미(일본 관광청, 2018)
- 일본 DMO는 제도적으로 관광청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며, 신청한 법인은 일단 DMO후보 법인이 되고, 심사를 통해 DMO로 인정받아 등록됨
- DMO의 유형은 대상지역의 범위 크기에 따라 광역연계DMO, 지역연계DMO, 지역DMO의 3가지로 나뉘며, 광역연계DMO는 복수의 시도부현에 걸친 지역을, 지역연계DMO는 복수의 기초지자체(시정촌(市町村))에 걸친 지역을, 지역DMO는 기초지자체 단독의 지역을 일체화한 관광지역으로 마케팅 및 매니지먼트하면서 관광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조직임
- 일본 관광청에 등록된 DMO는 2018년 현재, 208개로 조직별로 보면, 일반사단법인이 최다로 134개(64.5%), 다음으로 주식회사 28개(13.5%), 공익사단법인 14개(6.7%)의 순이며, 유형별로 보면 지역DMO가 109개(52.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지역연계DMO가 89개(42.8%), 광역연계DMO 10개(10%) 순임
- DMO의 형성·확립계획을 살펴보면 내용별 유형은 자연, 온천, 스포츠에 두고 있는 것이 많음



출처 :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国土交通省観光庁(2018) 및 国土交通省 観光庁 観光振興部 観光地域振興課 DMO支援室(2018)

세부추진내용

- 고모로시의 관광지역만들기는 사단법인 고모로 관광국을 중심으로 고모로시와 각종 지역단체 및 주민 그룹에 의해 추진
 - 사단법인 고모로 관광국의 직원수는 총 11명(정직원 4명)이고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이 구성

표 4-4 | 사단법인 고모로 관광국의 추진체계

구분	내용
대표자	• 전 고모로시 관광협회장, 고모로시의 대표적 숙박업자, 시내 및 주변 지역과의 중개·조정역할 담당
사무국장	• 타 지역에서 이주,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서 관광지역만들기 비전 검토회에 참여, 관광지역 만들기 비전책정의 중심인물, DMO설립 참여 •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조정, 각 사업총괄, 업무조정 담당
재무책임자 (CFO)	• 고모로시 시청 직원, 당시 29년 근무, 관광지역만들기 관련 사업분야 뿐만 아니라 재정측면도 기여
프로모션 책임자	• 시민으로 반도체 제조설비 메이커에서 40년 근무, 미국·유럽·동아시아 등 해외에서 영업·마케팅 경력 있음
이사회	• 고모로시, 상공회의소, 농업협동조합, 농업청년 클럽, 관광가이드 협회, NPO 가로연구회, 관광협의회, 상점연합회, 철도·버스 회사, 고모로시 금융단
회원수	• 160개 기업과 단체
워킹 그룹	• 체류프로그램 워킹그룹, 특산물 워킹그룹, 인바운드 워킹그룹, 관광마을만들기 워킹그룹, 차세대육성 워킹그룹(민간 사업체 75명)

출처 : 観光庁. 登録観光地域づくり法人「登録DMO」の形成・確立計画, “(一社)こもろ観光局の形成・確立計画”(https://www.mlit.go.jp/kankocho/content/001478974.pdf), 2022년 5월 20일 검색

- 관광지역만들기에 관한 주민의식 계발 및 참여촉진
 - 사단법인 고모로 관광국에 설치된 5개 워킹그룹에 주민참여

표 4-5 | 고모로시 관광지역만들기의 주민참여

구분	내용
체류프로그램 워킹그룹	• 지역 민간사업자들에 의한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특산물 워킹그룹	• 특산물의 고안, 지역사업체와의 연계작업, 고모로 특산물의 통합적인 정보발신과 판매
인바운드 워킹그룹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워크숍 개최, 해외 및 수도권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 영어 안내책자 작성, SNS에 의한 정보발신
관광마을만들기 워킹그룹	• 고모로시의 사회경제 유지와 재생에 관한 연구 및 워크숍 개최, 지역단체와의 연계작업,
차세대육성 워킹그룹	• 젊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강사를 초청하여 스터디·워크숍·세미나 개최

출처 : 観光庁. 登録観光地域づくり法人「登録DMO」の形成・確立計画, “(一社)こもろ観光局の形成・確立計画”(https://www.mlit.go.jp/kankocho/content/001478974.pdf), 2022년 5월 20일 검색

- 정보발신 및 프로모션
 - 통합적인 지역정보 발신으로 웹 사이트³⁾ 및 SNS(facebook, twitter) 운영
 - 관광안내소 운영(관광정보 제공, 숙박 안내와 예약접수)
- 관광객 수용환경 정비
 - 도시 전체가 유기적인 하나의 숙박시설이라는 ‘시중(市中) 숙소 구상’ 추진
 - 하나의 숙박시설 내에서 식사, 특산물 구입, 숙박 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내 상가를 돌아다니며 식사·특산물 구입·숙박을 한다는 방식으로 각 업체에서 역할을 분담
- 관광객 유치와 수용대책
 - 나가노현(縣) 및 주변 지역과 함께 관광객 유치활동
 - 고모로시와 공동정보발신 사업(안내 책자 작성, 동영상 제작, 시장조사 등) 실시
 - 외국인 여행자들의 관광가이드 책자 제작 및 관광시설 배포, 외국인 여행자 대응 능력 양성을 위한 연수 실시

3) 고모로시 관광협회 명칭으로 고모로 관광국이 운영(http://www.kanko.komoro.org/index.html), 2022년 5월 20일 검색

- 체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지역이벤트 개최(벚꽃·단풍 축제, 400년 역사 가마 축제, 시민축제, 트래킹, 사이클링, 아사마산 개방 축제, 스탬프 릴리 등)
 - 지역주민을 주체로 한 이벤트에 관광교류객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운용

2) 기후(岐阜)현 시라카와(白川)촌 사례

대상지 개요

- 시라카와촌은 일본 중부지방 기후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약 1,500명의 작은 농산촌지역임
- 시라카와고(白川郷)라고 불리는 오기마치(荻町) 지구에는 약 150세대, 600명의 주민이 갓쇼즈쿠리(合掌造り) 가옥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고 115개 동의 갓쇼즈쿠리 가옥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세워져있음
- 1960년대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때 목조가옥을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바꾸는 추세였으나 시라카와촌에서는 전통가옥을 보존하는 활동이 시작
 - 그 결과 1976년에 정부에서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되었고, 1995년에는 시라카와고의 경관과 갓쇼즈쿠리 가옥이 실생활에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됨
- 이후 연간 약 200만 명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으며, 이후에도 끊임없는 보존 노력으로 2020년에는 네덜란드의 NGO단체 그린 데스티네이션에서 ‘세계의 지속 가능한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기도 함

추진배경

- 인구 약 600명의 농산촌 마을에 연간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시라카와촌도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

- 쓰레기 투기, 주민 사생활 침해, 기물 파손, 교통 체증 등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
- 한정적인 구역에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것으로 주민생활 환경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쳐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의 매력을 떨어뜨림
- 또한 대부분의 관광객이 당일치기 관광객으로 숙박관광객은 10만 명이 넘지 않아, 관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가 미흡

그림 4-4 | 일본 시라카와고 오기마치 지구 전경(좌) 및 관광 성수시의 혼잡한 교통(우)



출처 : 일본 시라카와촌 홈페이지(<https://www.vill.shirakawa.lg.jp/>), 2022년 5월 31일 검색

- 시라카와촌의 주요 경관을 형성하는 전통가옥 갓쇼즈쿠리 가옥의 보존과 관련하여 서도 보존 비용 및 주거 불편에 대한 문제 발생
 - 고도경제 성장기에는 가옥 매각과 해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고, 가옥을 보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노후화된 가옥의 개보수 및 생활하기에 불편한 가옥구조 개조 등에 있어 개별 가옥 주민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 마을경관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한편, 당일치기 관광객의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며, 관광으로 인한 마을 내 경제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지역관광경영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

그림 4-5 | 갓쇼즈쿠리 지붕이기(좌) 및 갓쇼즈쿠리 가옥 내부



출처 : 일본 시라카와촌 홈페이지(<https://www.vill.shirakawa.lg.jp/>), 2022년 5월 31일 검색

세부추진내용

① 갓쇼즈쿠리 가옥과 취락의 보존

- 갓쇼즈쿠리 가옥의 보존을 위해서는 가옥지붕의 짚을 교체하는 일이 필수적인데, 주민들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가옥지붕을 교체하는 전통적인 조직의 존속 유지가 힘겨워짐
 - 이에 1963년 오기마치 지구 청년단과 갓쇼즈쿠리 가옥 소유자들이 모여서 갓쇼 보존조합을 결성해 지붕을 이기 위한 조직을 재구축하였는데, 이것이 보존활동의 조직화와 보존의식 양성의 토대가 됨
- 1965년경 갓쇼즈쿠리 가옥의 급속한 소멸과 인구유출에 위기감을 가진 당시 촌장과 시라카와고 오기마치 지구 리더들이 함께 갓쇼즈쿠리 보존운동을 시작
 - 이 운동을 시작으로 1971년 오기마치 지구 전 세대가 가입한 주민조직 ‘시라카와고 오기마치 취락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모임’ 발족
 - 주민조직 발족과 동시에, ‘지역 내 자원을 팔지 말고, 빌려주지 말며, 부수지 말자’라는 3개 원칙을 담은 주민 현장을 책정

- 이후 시라카와촌은 1976년에 시라카와고 오기마치 지구에 대해 신축, 증개축, 주차장 설치 등을 규제하는 조례, ‘시라카와촌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보존조례’를 제정하고, ‘시라카와촌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보존심의회’를 마을 교육위원회 안에 설치
 - 이에 따라 신축·증축 등 조례에서 정한 현상변경 행위는 변경신청 후 일단 ‘시라카와고 오기마치 취락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모임’에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시라카와촌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보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위원회가 허가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됨
-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존 노력이 있는 이후, 1976년 일본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라카와고 오기마치 지구를 정부의 ‘중요 건조물군 보존지구’에 선정
 - 이에 따라 가옥뿐만이 아니라 취락 전체가 문화재로서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가옥수리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됨

② 오버투어리즘 대책 마련

- 관광객 증가로 인해 발생한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배기가스 및 소음 등 교통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함께 2001년 ‘오기마치 교통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교통대책을 강구함
- 주요 내용은 오기마치 세계유산 취락 내에 대한 차량진입 제한, 승용차용 주차장의 운용, 임시주차장에서 오기마치 지구까지 셔틀버스 운행(파크&버스 라이드), 관광버스 승강용 주차장과 대기용 주차장, 승용차 주차장예약 이용시스템의 시행, 관광구역과 생활구역을 분리하기 위한 산책구역 가이드북의 제작·배포 등임
 - 특히 이벤트 개최시에는 관광객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 관광버스 예약제를 실시하고 승용차에 대해서는 파크&라이드 방식을 사용
 - ‘시라카와고 겨울의 라이트 업 이벤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마을외부의 지역·업계 브랜딩 회사 ‘NOFATE’ 사장이 교통혼란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에 이벤트의 ‘완전 예약제’, ‘입장 유상화’를 실시

-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 2년 전부터 지자체 및 주민들과 논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9년 이후 'NOFATE'가 예약·운영 관리 일체를 맡게 되었으며, 'NOFATE'의 이 활동은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2019년 정부로부터 지방 창생대상 교류 콘텐츠 부문을 수상하기도 함
- 관광객의 비매너 관광활동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주민들이 관광규칙에 대해 벽보를 붙이며 대응하기도 하였으나 무질서한 개별 벽보들이 경관파손을 야기한다는 인식 하에, 시라카와촌이 관광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만화로 보는 시라카와고 매너가이드' 등으로 안내
 - 시라카와고 매너가이드에서 시라카와고 관광협회는 '시라카와고를 방문하는 분께 드리는 당부말씀'을 홈페이지와 관광객이 모이는 특정장소에 게재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공정관광 행동을 유도
- 마을 내 다양한 관광 관련 사업체가 존재하지만, 관광소비를 촉진하는 데에 부족하고, 타 산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마을주민과 함께 2019년 마을종합전략을 마련하여 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 종합전략에서는 먼저 마을 내 산업 실태 및 내방객 현황을 조사하여, 음식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화로 독자적인 특산물 및 가공품 개발, 체험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또한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 기업 연계 및 인재를 유치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있음(白川村, 2019)

③ 기타 지속가능한 관광지역만들기 추진활동

- 관광지역만들기에 대한 주민의식 계발 및 참여촉진
 - 세계유산과 마을자원에 대한 마을주민 교육 및 각종 워크숍 개최
 - 마을의 관광 관련 기사, 각종 사업에 관한 정보를 담은 마을신문 발행
- 정보발신 및 프로모션
 - 웹사이트 및 SNS 운영

- 시라카와고 특산품 인정제도 마련 및 마을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시라카와고 브랜드 위원회 설립 및 마을 특산물, 농산물, 숙박시설의 브랜딩화
- 마을의 독자적인 가공품을 기획·개발하는 주민조직 설립 및 민간 기업과 연계
- 관광객 수용환경 정비
 - 혼잡시 시라카와고 입장제한 및 주차장 요금 인상
 - 흡연소와 공중화장실, 쓰레기통의 재배치와 정비
 - 주민에 의한 마을 내 쓰레기 줍기와 휴경지 풀뽑기
- 관광객 유치와 수용 대책
 - 외국인 관광객의 매너 계발을 위한 홍보활동
 - 다언어 서비스에 의한 시라카와고 가이드 서비스
-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계류낚시, 래프팅, 삼림캠프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라카와고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 짚풀 베기, 갓쇼즈쿠리 가옥 라이트 업 이벤트 등 전통 축제 및 이벤트 개최

그림 4-6 | 짚풀베기 이벤트(좌) 및 겨울 라이트 업 이벤트(우)



출처 : 일본 시라카와촌 홈페이지(<https://www.vill.shirakawa.lg.jp/>), 2022년 5월 31일 검색



부산시 공정관광 활성화 전략

1. 부산시 공정관광 육성 기본방향

공정관광의 인식 제고 및 확산

-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공정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정관광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관련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가장 중요한 인식 전환은 관광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관광활동을 일상에서 벗어난 일종의 일탈적 활동으로 여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착한 소비를 유도해야 하는 만큼, 공정관광을 위해 인식 제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의 기획도 필요함
- 공정여행업체 및 공정여행지 등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은 공정관광 가이드라인 제시 등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방문객 에티켓 등을 사전 및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표 5-1 | 투리즘 커서언(Tourism Concern)이 제시한 커뮤니티관광 행동양식 예시

항목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관광은 지역주민과 연계되어야 한다. • 이는 지역주민들이 비용을 지급받지 않고서도 의사결정과 소유에 참여해야함을 의미한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커뮤니티는 어떠한 관광 위험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

항목	내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중개업자(tour operator)는 개인보다는 커뮤니티와 협력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일하는 것은 커뮤니티 내 분화를 일으킬 수 있다. 커뮤니티들이 대표 기구를 가지는 곳에서는 이 대표기구와 상담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보존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역주민들은 이익을 얻어야 하고 협의해야 한다. 관광은 부족한 자원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은 토착 지식에 존경심을 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지지해야 한다. 관광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적 유산이 가치있는 것이라는 것을 독려할 수 있다.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개업자들은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역주민과 협력해야 한다.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하게, 투어 오퍼레이터들은 문화적, 환경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소규모 그룹을 유지해야 한다.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중개업자 또는 가이드는 관광객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적절한 옷, 사진찍기, 프라이버시 존중하기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들은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관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들은 관광객을 위한 부적절한 의례(ceremony)를 수행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은 관광을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관광을 거절하는 커뮤니티는 그대로 남겨져야 한다.

자료 : Mann, M(2000), 여기서는 이소영(2005)에서 재인용

주민이 함께 하는 부산형 공정관광 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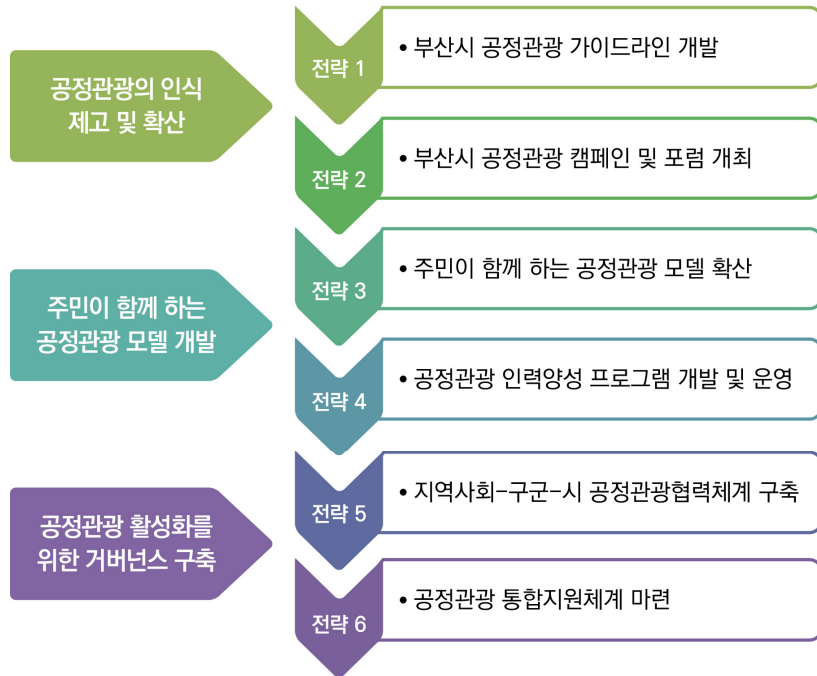
- 공정관광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부산시 조례에서 규정한 개념을 차용하여, 공정관광을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생태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으로 규정
- 공정관광이 다루는 이슈는 관광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동등한 관계, 공정한 거래 절차 및 과정, 결과의 공정한 분배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지만, 부산형 공정관광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관광지 주민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으며, 주민들에게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환원되는 관광, 즉 주민이 함께 하는 지역관광 만들기라고 할 수 있음

- 마을단위에서는 감천문화마을 등이 이미 주민 주도적인 마을관광의 모델을 발전시켜 오고 있으므로, 이를 부산 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부산형 공정관광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 주민이 함께 하는 공정관광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구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
- 한편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공정관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 동래구밖에 없으며, 감천문화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사하구의 경우 관련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서 마을 조성 및 기본원칙 이행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7조에 의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마을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협의체는 마을과 관련된 각종 계획, 마을기업 등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제8조), 협의체의 구성은 마을 주민들로 자발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제9조)
- 공정관광과 관련된 관계자는 행정당국 및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산업체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이 되어 있음
 -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서 공정관광 관련 활동들이 관광협회 등 관광산업 관련자들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주민 및 시민참여활동 관계자들로 이분화되어 있음
 - 공정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조로는 상호 소통 및 협력이 어려우므로,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림 5-1 | 부산시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부산시 공정관광 추진전략

1) 공정관광의 인식 제고 및 확산

부산 공정관광 가이드라인 개발

- 공정관광에 대한 이해가 낮은 관광객과 관광업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관광을 안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부산시만의 가이드라인이 필요
- 가이드라인은 공정관광을 기획하는 여행사들과 국내외 자치단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되, 부산의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 부산만의 지침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

- 공정관광 여행사들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은 인바운드 여행객보다는 아웃바운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지침이 많으므로, 국내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
- 지역 관광객의 경우에도 부산으로 진입하는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동네, 마을을 진입하게 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함

표 5-2 | 국내외 주요 공정관광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현황
트래블러스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숙소,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한다. •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 농산물로 만들어진 먹거리를 이용한다. • 지역주민과 거래할 때는 그들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게, 이왕이면 재래시장이나 공정무역판매처를 이용한다. • 지역의 전통음식이나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난다. • 사진을 찍을 때는 허락을 구하고, 서비스에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한다. • 아동 학대나 성매매는 절대하지 않는다. • 동물을 학대하는 쇼를 관람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만들어진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 여행지의 문화유산이나 농작물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는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보 및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여행을 한다. • 물컵, 수저, 손수건, 도시락통, 친환경 비누를 사용한다. • 물과 연료를 아껴 쓰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착한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소비하기 • -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숙소, 여행사 이용하기 • 현지 공정무역상품 구입 또는 재래시장 이용하기 •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에 대한 탄소상쇄기금 기부하기 • 친환경적인 숙박시설 이용하기 • 현지의 대중교통 이용 또는 자전거나 도보여행 해보기 • 호텔로 하여금 물품 재활용하도록 요청 • 가이드북에 나와 있지 않은 여행지 찾아가기 • 현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공부 해보기 • 현지의 공익단체 방문
이매진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여행 • 동식물을 돌보는 여행 •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행 •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행

구분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여행 • 관계를 맺는 여행 • 여행하는 곳의 사람과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 • 마음을 표현하는 여행 • 기부하는 여행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를 존중해요. • 소음, 쓰레기를 줄여주세요. • 자연을 보호해요.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요. •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요. •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요. •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자료 : 장은경 외(2010) 등을 참조하여 재정리

- 물론 작성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 구체적인 관광객의 관광행동 양식은 감천문화마을의 예처럼, 해당 마을의 여건에 맞게 마을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과정을 통해 마을규약으로서 제공되어야 함

표 5-3 | 감천문화마을의 방문객 에티켓 및 10가지 약속

항목	내용
방문객 에티켓 (한·중·일 영)	•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말소리는 최대한 작게, 사적 생활을 침해하는 사진 촬영은 삼가 주시고, 지정된 투어코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1	• 예쁘고 고운 말로 매너 있게 이야기해요.
2	• 사생활을 지키며 촬영의 품격을 높이세요.
3	• 두 달에 한 번 허심탄회 이바구 어때요?
4	• 우리 마을 일자리, 우리 주민 모두의 일자리
5	• 매월 마지막 주말은 감천 대청소의 날입니다.
6	• 우리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울게요.
7	• 감천의 미래!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 손으로!
8	• 골목길 안내판은 감천의 미소짓는 얼굴입니다!
9	• 주차장 주차는 감천의 기본 에티켓입니다.
10	• 감천의 어른신은 우리의 엄마와 아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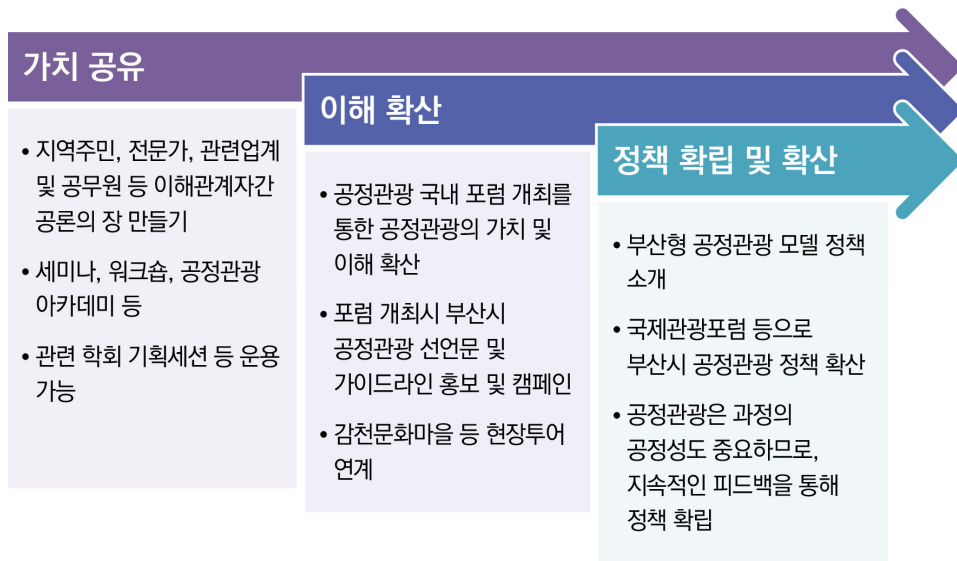
자료 : 연구자 현장조사

부산 공정관광 포럼 및 캠페인 개최

- 부산형 공정관광의 이해 제고 및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공론의 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정관광 워크숍 및 세미나, 국내외 관련 포럼 개최,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이 활용 가능
- 서울시의 경우, 2011년 공정관광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 개최를 기점으로 공정관광을 본격 추진
 - 이후 2017년부터는 세계관광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발생한 바르셀로나를 포함하여, 제주도 등과 공동 사업을 추진
 - 서울 공정관광 선언문 또한 2016년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 당시 발표
- 부산의 경우, 아직 관련 계획 및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기 전이므로, 공정관광의 가치 및 이해의 확산을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먼저, 지역주민, 전문가, 관련업계 및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공정관광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의 장을 활용
 - 공정관광은 관광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
 - 세미나, 워크숍, 공정관광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식이 활용가능하나, 공정관광에 대한 이론 및 사례의 확산 등을 위해서는 관련 학회와 연계하여 부산 공정관광 기획세션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방식임
- 부산형 공정관광에 대한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등 어느 정도 공정관광에 대한 이해가 공유된 이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국내외 포럼 등을 개최하며 부산형 공정관광에 대한 홍보 가능
 - 포럼 개최 시 부산시 공정관광 선언문 및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국내 포럼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자매도시 등과 함께 국제관광포럼 개최도 가능하며, 포럼 개최 시 부산의 공정마을관광지 연계투어도 진행하여 부산의 공정관광 사례 확산

그림 5-2 | 부산시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홍보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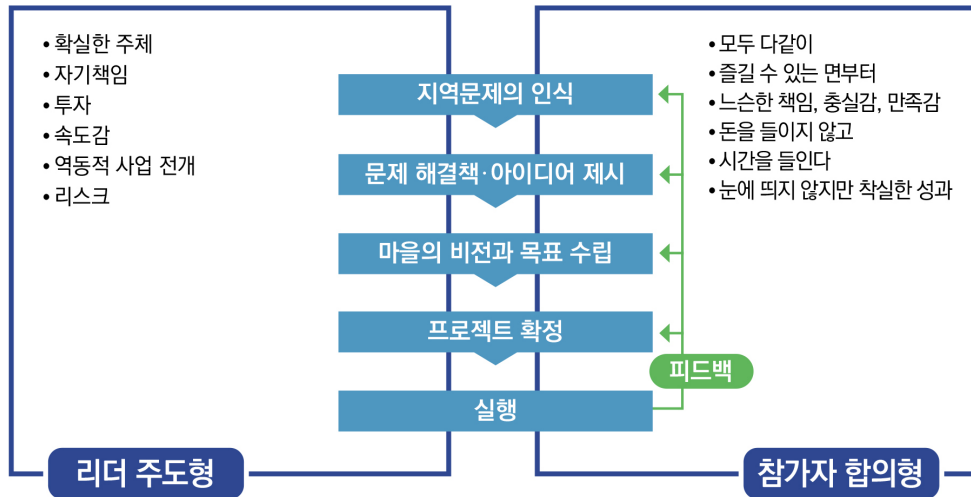


2) 주민이 함께 하는 부산형 공정관광 모델 개발

주민이 함께 하는 공정관광 모델 발굴 및 확산

- 김선기 외(2007)에 따르면, 마을 만들기는 지역문제의 인식에서부터 실행, 피드백 과정의 단계를 거치며 사업이 추진
 - 실제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리더주도형과 참가자합의형이 대별되며, 초기단계에는 리더주도형으로 추동되나, 점차 전체 주민이 공동합의하는 보다 성숙한 유형인 참가자 합의형으로 전환됨을 시사

그림 5-3 | 마을 만들기 추진단계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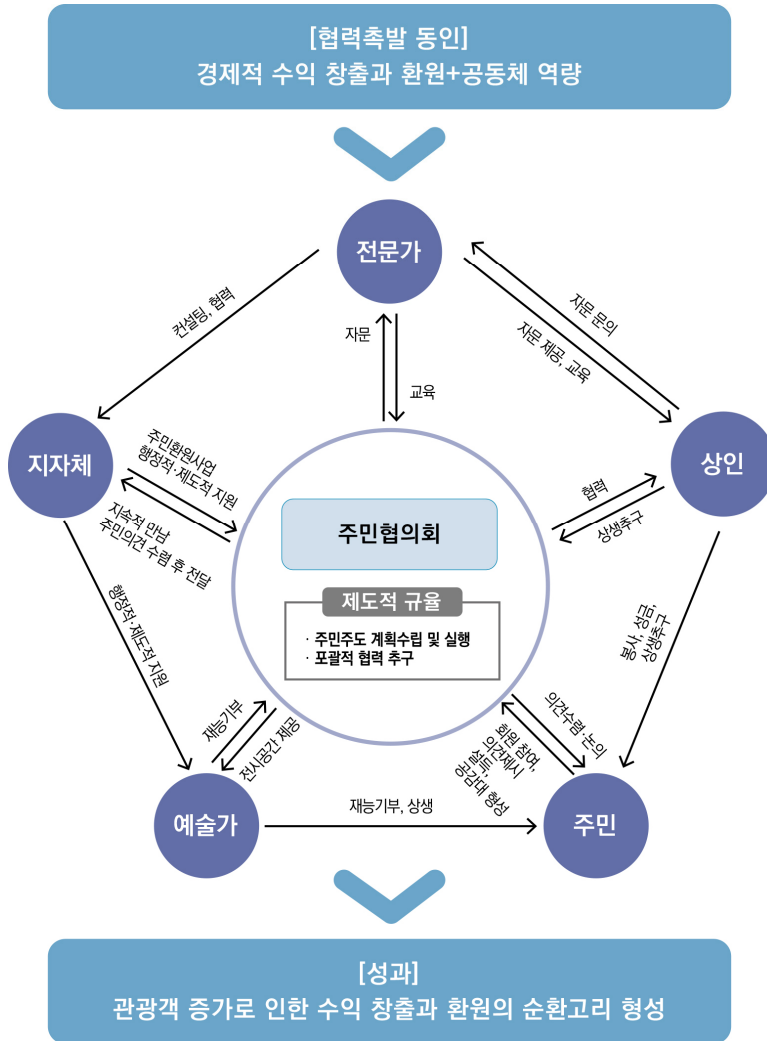


출처 : 김선기·이소영(2007)

- 연구자들에 의하면(이상호, 2017; 우양호, 2019; 안소현, 2020), 과잉관광이라는 지역문제에 대응하여 부산시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관광마을 만들기 사례로 감천문화마을을 제시하고 있음

 - 주민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 예술가, 공무원, 상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 과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 주민은 마을사업에 참여하며 소득을 재분배하는 자립형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임
 - 주민협의회가 성공적인 마을 운영을 이루어내기까지 다양한 외부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즉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감천2동 주민센터,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클린사하,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등 많은 기관과 실질적인 협력활동을 수행해 옴
 - 초기에는 문체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일부 주민들만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력하였지만, 점차 확대·조직화되어 가면서 현재와 같은 민관 거버넌스 모형을 구축하고 있음
-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주민주도형 관광마을 만들기 모델을 주민이 함께 하는 부산형 공정관광 모델로 확립하여,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여러 마을에 확산해가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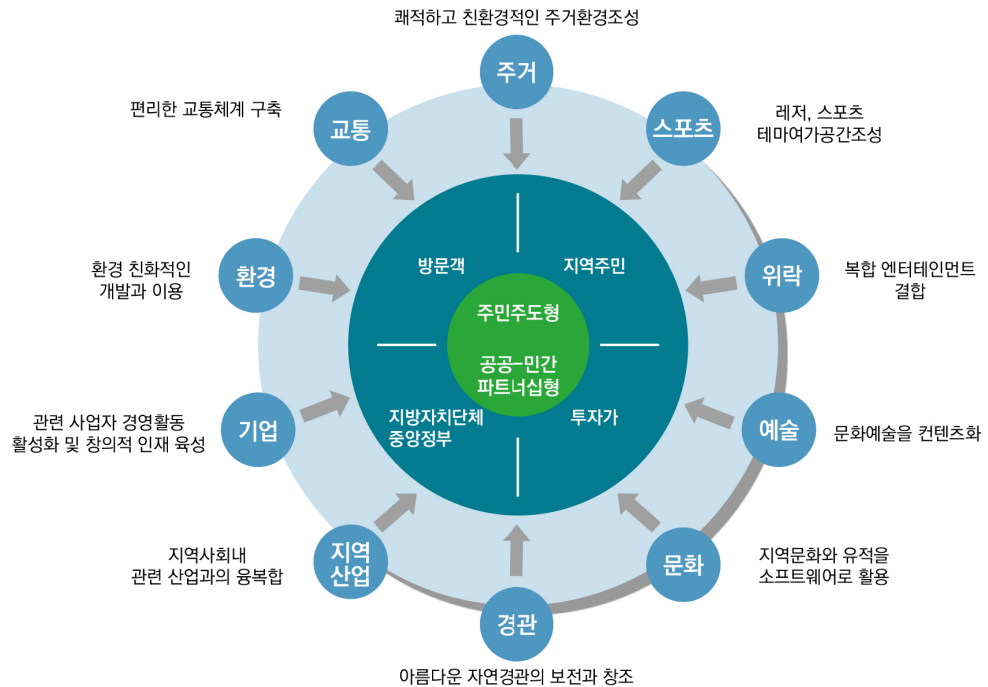
그림 5-4 | 부산시 감천문화마을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출처 : 안소현(2020)

- 한편, 실제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마을 만들기는 대상이 되는 지역이 주거환경과 경제환경, 여가환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관광마을 만들기가 추진되어야 함
 - 부산의 다양한 공정관광 마을 대상지를 고려하였을 때, 부산형 주민이 함께하는 공정 관광 모델의 구성요소별 목표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음

그림 5-5 | 관광형 마을 만들기 추진모델



출처 : 김선기 외(2006)

표 5-4 | 주민이 함께 하는 공정관광 모델의 구성요소별 과제

구분	추진목표	추진과제	
거주 기능	주거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 정비, 어메니티(amenity) 정비 도심 내 여가공간 정비 생활주변 문화, 생태, 역사자원의 여가자원화
	교통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철도망 확충 및 택시, 버스, 렌터카 등 대중교통시스템 확충 연계교통수단간 관광객 환승편의 교통정보 및 안내시스템을 완비
	환경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열에너지, 심야전기 등 에너지 저감대책, 하수 및 쓰레기 등 이용에 따른 영향관리를 위한 이용자관리(Visitor Impact Management) 프로그램
	경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형성작물 재배 등 도로변 경관 조성 경관조망에 장애요인이 되는 시설물, 간판 등을 정비 경관조망 포인트를 발굴하여 휴식 전망공간으로 개발

구분	추진목표	추진과제
경제 기능	기업 관련 사업자들의 경영활동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업, 음식점, 안내해설, 여행업 지역 내 관광사업의 창업 촉진 • 관련 사업자간 협회 또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마케팅 전개 •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의 교육·훈련
	자연 산업 지역사회 내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 관광상품 및 코스 개발 • 자연산업을 테마로한 박물관, 전시관, 테마마을, 휴양지, 공원 등 • 지역 농특산물, 기념품 개발 • 자연산업과 연계한 축제·이벤트 개발
여가 기능	문화 지역문화와 유적을 소프트웨어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열린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가프로그램과 연계 • 박물관, 역사관, 전시관, 문화유적 등을 여가관광의 거점으로 활용 •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이벤트, 전시회, 강좌, 학술대회, 체험학습, 주민참여프로그램 개최
	예술 문화예술을 콘텐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 유치 및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관광객 교류공간으로 조성 • 이벤트, 축제, 공연, 전시 등으로 관광상품화
스포츠	위락 복합 위락요소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건전한 위락공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 • 체험활동과 엔터테인먼트,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결합
	스포츠 레저스포츠를 테마로 한 여가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를 테마로 한 공원과 리조트 •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 • 스포츠치료 프로그램 개발

출처 : 김선기 외(2006)를 참조하여 재작성

공정관광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부산형 공정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획가 및 실무자 등 관련 인력이 육성되어야 함
- 국내에서도 대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련 교육과정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 (주)공감만세의 관련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반시민 및 공정여행 기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림 5-6 | (주)공감만세의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 광주광역시 동구(좌) 서울시(우)

공정여행은?
지역 사람을 만나 관계 맺음으로 소비보다는 관계를 지향하는 여행입니다. 지역 주민을 여행인솔자로 고용하고,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고, 걷는 여행을 지향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여행을 합니다.

공정여행가 양성과정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기반 공정여행을 함께 공부합니다. 마을 사람을 만나고, 마을의 자원을 여행지로 끌어옵니다.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 수강생들은 지역기반 공정여행을 주제로 한 사회적 기업 창업이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 (주)공감만세
(주)공감만세는 여행객만이 아닌 여행자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여행을 기획합니다. 매출의 9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이익의 10%를 (주)공감만세에 기부하며, 10명의 광주민들 직·간접적으로 고용합니다. 10명의 사람이 여행을 떠날 때, 1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여행 기쁨을 제공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 (사)불투리사회자기립교회네트워크
불투리사회자기립교회는 기존 대학과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대안대학입니다. 자신의 삶과 살아가는 사회를 새롭게 이루는 주체가 되는 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배우는 이 중심으로 수업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스스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얻도록 합니다.

출처 : 공감만세(<https://www.fairtravelkorea.com>), 검색일: 2022년 7월 1일

표 5-5 | 부산시 공정여행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안

구분	내용	연계 프로그램
관광 관련 공무원 및 관련 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관광 이론과 실제 공정관광 국내외 성공사례 공정관광 홍보마케팅 전략 선진사례 탐방 	관련 공무원 직무교육 연계
일반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관광 이론과 실제 우리동네 공정여행지 탐방 현장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부산관광공사 등 프로그램 연계
공정여행 기획 및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문, 심화, 인큐베이팅 지역기반 자원조사 및 방법론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정여행 기획 실습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이해와 실제 	공정여행 교육기관 프로그램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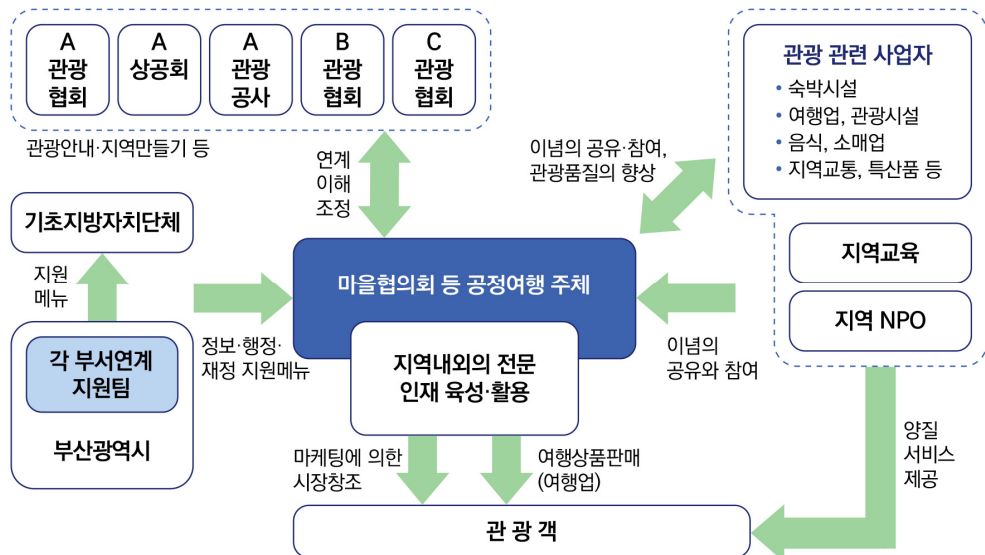
- 대전 등과 달리 구체적인 공정관광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부산시의 경우 사업과 연계된 기획이 및 실무자 인력양성 프로그램보다는 시민, 공무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정관광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즉 기존 교육 프로그램 및 팸투어 등을 활용하여, 관련 공무원 및 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정관광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여행지 탐방 등으로 부산의 공정관광 경험들을 공유해나가도록 함

3)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지역사회-기초지자체-부산시 협력체계 구축

- 부산형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주체는 마을단위의 추진조직인데, 주민협의회 등의 공정여행 추진 주체는 1차적으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되므로, 부산광역시는 구군-지역사회로 연결되는 수직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5-7 | 지역사회-기초지자체-부산시 협력체계 구축



- 부산시의 공정관광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등이 수립된다면,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의 업무지원 등을 기초자치체 및 해당 마을단위 공정여행지에 안내
- 또한 도시재생, 지구단위계획, 경관사업, 대중교통연계, 각종 체험마을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특산품 개발 등 마을단위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 부서의 지원업무에 대한 행·재정 지원 메뉴 안내도 필요
- 일반 주민들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이해가 낮으므로, 해당 주민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요할 때, 부산시와 해당 구군의 업무 지원 매뉴얼이 사전에 안내될 필요도 있음
 -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사례에서처럼 주민협의회의 구성 시, 외부 인사들을 특별회원으로 참여시키는 구조도 중요한데, 전문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도 참여하게 하는데에는 이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임
- 또한 해당 지역에서 공정관광 관련 활동들이 기존 관광업계인 관광협회 등과 사회적 기업 등 시민참여 활동들로 이분화 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 숙박시설, 여행업, 음식 및 소매업 등 관광관련 사업자 간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함
 - 협력적 거버넌스의 추진경험 또한 감천문화마을 사례를 통해 다양한 추진주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방안 등이 공유·확산될 필요가 있음
- 공정관광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관광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재분배 등이 목적이므로, 구축된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정관광의 이념의 공유와 참여 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립해나가야 함

부산형 공정관광 통합지원체계 마련

- 일본은 관광 지역만들기의 추진을 위해 주무부서인 관광청의 주도하에 주민주도형 관광마을 만들기의 기본방침 등이 수립되고 DMO 등록제도 등 관련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나, 한국은 공정관광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편임

- 관광진흥법상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공정관광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함
- 주민공동체의 관광사업체 경영을 지원하는 관광두레 지원 또한 한국관광공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한국관광공사의 지역본부가 중심이 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이 미흡
- 한국의 공정여행지의 실질적 경험과 성장은 관광진흥시책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도시재생 지원사업,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등에 의해 추동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도 관광진흥 부서보다는 자치행정,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유관부서를 통해 지원된 사례가 많음
-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공정관광 통합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부산시의 경우 아직 공정관광 시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 않으므로, 새롭게 통합지원조직을 마련하기보다는 현재 구축된 체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으로 개편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시장은 공정관광의 주요 사항의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정관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6조 2항에 의해, 위원회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제7조에 의한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즉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음
 - 이는 부산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제7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4의2.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관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공정관광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Cleverdon, R. & Kalisch, A.(2000), Fair Trade in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 171-187.

Mahony, K.(2007), Certification in the South African Tourism industry: the Case of Fair Trade in Tourism, Development Southern Africa, 24(3): 393-408.

Mann, M(2000), The Community Tourism Guide, London: Tourism Concern/Earthscan Publications.

UNWTO(2020),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May 2020: Special focus on the Impact of COVID-19.

World Economic Forum(2022),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 2021 - Rebuilding for a Sustainable and Resilient Future Insight Report, May 2022.

小諸市 観光地域づくりビジョン検討会(2016), 小諸市観光地域づくりビジョン-詩情あふれる高原の城下町.

国土交通省 観光庁 観光振興部 観光地域振興課 DMO支援室(2018), 観光地域づくりに対する支援メニュー集 -DMOや自治体などの取組に役立つ各府省庁の支援施策を集約しました- (平成30年度 予算確定版), 国土交通省 観光庁.

観光庁, 登録観光地域づくり法人「登録DMO」の形成 確立計画, “(一社)こもろ観光局の形成 確立計画.”

岐阜県 地域振興課(2007), 「ぎふ まちづくり応援プラン別冊 まちづくり事例集」, 岐阜県.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国土交通省 観光庁(2018), 「日本版DMO」形成 確立に係る手引き (第3版), 国土交通省 観光庁.

白川村(2019), 「白川村 第2次 総合戦略 いつまでも住み続けたい村づくりマスタープラン 2020~2024」, 白川村.

김선기·한표환·김현호·이소영 외(2006),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유형별 기본모델,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선기·이소영(2007),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 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형오·장재현(2019),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방안, 전북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국민여행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국민여행조사.

박구원(2005), 도시 지역관광의 뉴 프린티어, 백산출판사.

박주영(2018), 오버투어리즘 현상과 대응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소현(2020),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해결 사례연구: 부산 감천문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오익근(2011), 공정관광으로 가는 정책, 한국관광정책 No.43, pp. 74-78.

우양호(2019), 마을 공동체의 진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극복 -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향도부산, 38: 399-440.

이상호(2017), 관광정책환경이 문화관광 거버넌스의 운영과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의 사례, 관광학연구 41(10): 69-85.

이소영(2005), 지역문화관광 상품화 과정의 문화매개집단 역할에 관한 연구: 일본 가나자와시 히가시 아마 지역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소영·김도형(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전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종열·이형룡(2016), 베이비 붐 세대의 가치관과 가치지각이 공정관광 실천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 관광레저연구, 28(10), pp. 283-301.

이태숙·김철원(2015), 공정관광(Fair Tourism) 속성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7(10), pp. 347-366.

이진희(2003), 장소마케팅, 대왕사.

이훈(2010), 한국관광산업의 발전방향과 공정관광의 역할,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포럼 제3차 포럼 ‘한국관광산업의 새로운 흐름에 주목하다.’

임영신(2009), 대안의 여행, 공정여행을 찾아서, 환경과 생명, pp. 124-143.

장은경·이진형(2010), 공정여행의 국내 사례: 북촌 한옥마을 공정여행, 관광연구논총, 22(2), pp. 27-47.

전명숙 외(2018), 제주지역 오버투어리즘 관련 관광정책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4(4), pp. 219-230.

정대영 외(2020), 코로나19, 여행의 미래를 바꾸다,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No.419, pp. 1-25.

최경은 외(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성장 아젠다와 정책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2020.6), 안전의식이 바꾼 여행 트렌드 SAFETY, (보도자료 2020.6.11).

한국관광공사(2011), 모두가 행복한 서울관광 만들기: 공정관광.

황희정-이훈(2011), 공정관광의 개념 분석-이론화를 위한 고찰, 한국관광학회, 35(7), pp. 77-101.

황희정(2021),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방향, 대구경북연구원.

공감만세(<https://www.fairtravelkorea.com>).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www.tour.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대전공정관광 홈페이지(www.daejeon-fairtravel.com).

대한민국 산티아고 순례자 협회(<http://caminocorea.org/>).

비짓부산 홈페이지(<https://www.visitbusan.net/>).

비짓서울 홈페이지(<https://korean.visitseoul.net/walking-tour>).

사유담역사탐방 협동조합 카페(<https://cafe.naver.com/4uhealing>).

서울공정관광포럼 홈페이지(<https://www.seoulfairtourismforum.net>).

이미진피스(<http://www.imaginepeace.kr>).

제주생태관광(<https://sayecojeju.com>).

착한여행(<https://www.goodtravel.kr>).

트래블러스맵(<https://travelersmap.co.kr>).

한국관광 데이터랩(<https://datalab.visitkorea.or.kr>).

일본 관광청(<https://www.mlit.go.jp/kankocho>).

일본 시라카와촌 홈페이지(<https://www.vill.shirakawa.lg.jp>).
